젠더
이데올로기
발표논문 03

Libertinism의 역사와 20세기 성혁명, 그리고 그 의학적 합병증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초 록

Libertinism은 17세기 서구 상류계층에서 나타난 libertine(방탕아)의 사고방식으로 책임감 없고 제약을 두지 않는, 나아가 신성시 되는 행동방식을 무시하는 성적 방종(방탕)을 의미한다. 이는 쾌락주의(hedonism)의 한 극단형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 libertinism 이 발전해온 이전의 역사를 review 하고, 이후 계몽시대의 대표적 libertine인 사드를 거쳐 19세기 퇴폐(데카당스) 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20세기의 성혁명의 프리섹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역사적 과정을 볼 때, 방탕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현대의 프리섹스문화의 사고방식이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이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ibertinism과 성혁명과 관련된 문화와 행동이 의학적 측면에서 인류에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문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I. 서론

Libertinism[1]이란 방탕아(libertine)의 생각, 가치관, 내지 철학 사상이다. 즉 성적 행위에 제약을 두지 않는 사상이다.

Libertine(이라는 용어는 원래 칼뱅이 제네바에서 도덕적 규제를 무시하고 부도덕, 술취함, 악담 등을 행하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부정적 의미로 지칭하였던 단어였다. 이 용어는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며 성적 방탕과 더 관련이 깊어졌다. 그러면서 libertine은 방탕아(내지 난봉꾼, 플레이보이, 돈판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방탕아의 생각은 철학적으로 libertinism)이다. Libertinism은 17세기 귀족들의 방탕, 성적 및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였다. Libertine 또는 libertinist(방탕주의자)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육체적 쾌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사전적 의미는 도덕성, 책임감, 또는 성적 절제가 없는 사람,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사회의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또는 신성화된 행동방식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에 의해 규정된 행동 양식이나 관습적 도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

1) 자유사상. 방종주의 등으로 번역되나, 이 논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영어명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주로 포함된다.

“libertine”, “libertinage”, “libertinism” 등등의 개념은 “자유”(freedom, liberty)을 오용(misuse)하는 행동형태, 사고방식, 또는 말하기 이다. 이런 단어들은. 사회에 부정적이고 과도하며 해를 끼치는 형태의 자유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있다. Librtinism과 libertine은 방탕의 의미가 강하며, 따라서 말 그대로 “자유”를 의미하는 libertarianism(자유주의)과 libertarian(자유론자)과는 의미가 다소 중첩되지만. 구별된다. Libertinism은 hedonism(쾌락주의)의 한 극단형이기도 하다.[3] 한편 hedonism은 고대 그리스의 Epicureanism과 연결된다.

이 글은 고대부터 서구 사회에 있어왔던 libertinism이 어떻게 기독교의 영향을 벗어나 현대의 집단(mass) libertinism, 즉 성혁명적 프리섹스 현상으로 발달해 왔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의학적 부작용을 살피고자 한다.

II. 역사적 배경

1. 고대

Epicureanism

쾌락(pleasure)에 관련된 철학의 원조는 그리스의 에피쿠로스(Epicurus 341-270BC)로서, 그는 Epicureanism(에피쿠로스학파)를 창시하였다. 일반적으로 Epicureanism은 쾌락, 편안함, 그리고 특정한 스타일을 가지는 고상한 삶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학파에서의 쾌락이란 정신적 쾌락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에 고통이 없는 궁극적으로 “늘 평안한 상태”가 진정한 쾌락이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은 철학이었다. 그 쾌락은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를 utility에 따라 축소하고 우정을 중시하며, 욕망을 줄이고 공공적 생활을 하기보다 은둔하여 조용히 살라고 권하고 있다.

Epicureanism의 윤리는 원칙적으로는 스토아학파의 “의무의 윤리”와 반대이지만, 그 결과는 같다. 즉 최종적으로는 둘 다 절제와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자제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있어 스토아학파는 “세상”의 이성을 중시하고,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원”(garden)의 우정을 중시한다. 그 정원은 지상의 끝까지를 포함하지만, 그 중심은 “개인”이다.

로마제국에서의 에피쿠로스철학자로는 네로 시대의 페트로니우스(Gaius Petronius Arbiter 27-66)가 있는데, 그는 「the Satyricon」이라는 풍자소설을 썼다.

---

2) "libertine" at WordNet

3) Psychological hedonism. Encyclopedia Britannica. Retrieved 29 January 2021.

Hedonism

고대부터 hedonism은 epicureanism과 혼동되어 왔다. 대체로 hedonism은 epicureanism과 같지만 보다 generic하다는 의견이 있다. Hedonism의 신조는 “쾌락(pleasure)은 좋다”는 것이다. 쾌락과 행복이 주된 선(good)이 된다. Hedonism에는 여러 논점이 있다.[4] Psychological hedonism은 또는 동기적 쾌락주의(motivational hedonism)는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증가시키려는 또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5] 사람의 모든 목적적 행동은 궁극적으로 쾌락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이론은 이타주의의 쾌락을 설명한다. 가치론적 쾌락주의(Axiological hedonism)란 (윤리적 쾌락주의의 일부이기도 함) 오로지 쾌락만이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이론이다.[6] 규범적 또는 윤리적 쾌락주의(Normative or ethical hedonism)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마땅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다.[7] 숙고적 쾌락주의(reflective hedonism)은 숙고한 것이 어떤 추구에 가치를 더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목적을 결정하기 어렵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수에 비도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folk hedonism"(대중적 쾌락주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 몰두함으로 단기적 만족을 이기적으로 추구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8]

Libertinism

이 글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libertinism(방탕주의) 이다. 이는 조용하고 편안한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Epicurean 철학과 다르고, 물질적 쾌락을 중시하는 Hedonism과 비슷하다. Hedonism과 libertinism은 모두 쾌락이 그 중심에 있지만, 전자는 사치와 방탕의 행동에 중점이 있고, 후자는 비도덕적인 호색, 음탕이라는 성적 방탕에 중점이 있다. 대체로 libertinism은 극단적 hedonism으로 본다. Libertinism은 앞서 말한 "folk hedonism"(대중적 쾌락주의)와 같아 보인다.

Libertinism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인간사회에 있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내 도덕적 비판을 받아왔다.

Dionyisia(디오니수스축제) 및 Bacchanalia(박카스축제)

고대 그리스에서의 libertinism은 Dionyisia(디오니수스 축제)[9] 때, 그리고 로마에서

---

4) Gosling, Justin. Hedonism.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5) Moore, Andrew (2019). Hedon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6) "Psychological hedonism". Encyclopedia Britannica. Retrieved 29 January 2021.
Haybron, Daniel M. The Pursuit of Unhappiness: The Elusive Psychology of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7) Weijers, Dan. Hedonism.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iep.utm.edu/hedonism/

8) Hedonism. www.merriam-webster.com. Retrieved 30 January 2021.

9) Great Dionysia. Joukowsky Institute for Archaeology & the Ancient World. Brown University.
https://www.brown.edu/Departments/Joukowsky_Institute/courses/13things/7411.html

는 bacchanalia(바커스축제) 때 표현되었다. 당시 방탕아로서는 3대 로마황제 칼리굴라가 있는데, 그의 orgy(섹스파티)가 유명하다.

Dionyisia는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수스축제(Dionysian festival)[10]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약 일주일간 열렸다. 축제의 신은 디오니수스이다. 디오니수스는 술취한 satyr들(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반인반수)와 maenad들(광란적인 여자 시녀)들을 거느린다. 이 축제는 그 이전에는 에로틱한 농민의 축제였다. 즉 디오니수스종교의 숭배의식이 야간집회로 열렸는데, 그것은 거의 광란의 축제였다 한다. 주로 여성들이 가면을 쓰고 정신없이 술에 취해 제물로 바쳐진 짐승 또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셨다고 한다. 이는 상징적 행위로 신과의 합일을, 무한한 생명의 힘을 얻는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이 극단적 종교의식은 기원전 7,8세기에 디오니시아(축제)로 공식화되면서 순화되었다. 광란의 노래와 춤 대신 합창과 무용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모든 주요 연극 관계자들이 퍼레이드를 펼쳤는데, 화려한 춤과 거대한 남근(팔로스) 등 볼거리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선정된 연극들, 즉 비극(소포클레스 등)이나 희극이 경연되었다. 저녁에는 포도주파티가 열렸다.

Bacchanalia는 로마의 바카스 축제로, (디오니수스는 술(포도주)의 신으로 로마에서 박카스로 불리었다) 그리스 dionysia의 황홀경적(ecstatic)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스의 dionysia가 서기전 200년경에 로마에 들어와 로마의 토착적 컬트인, 포도농작과 포도주와 생식의 신 Liber(자유의 존재라는 의미)를 기리는 축제 Liberalia와 융합된 것으로 본다. 초기 로마의 지배층은 이 축제를 신비적인 cult로 보았다. 로마 역사가 Titus Livius (영어명 Livy 64/59 BC-AD 12/17)는 모든 연령층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열광적인 의식과 난폭한 성적 행위 등을 보고 국가에 반항하는 흉악한 음모적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고위층들은 그 컬트가 로마의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억제하려 하였다. Livy는 당시 7천명의 컬트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체포되어 대부분 처형당했다고 하였다. 로마 당국의 제제로 바카날리아는 축소되어 Liberalia festival로 통합되었다. 133BC이후에는 Bacchus, Liber 및 Dionysus 등은 모두 술의 신으로 혼용되었다. 나중 이 풍습은 중세 때 이탈리아 지역의 카니발(carnival)로 이어진다.

Dionysia 와 bacchanalia는 중세이후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주제가 되었다. 그림 내용은 대개 포도와 포도넝쿨을 관처럼 쓴 디오니소스(박커스)의 모습, 술, 나체, 섹스파티 등이다.

2. 중세

서구의 성 역사를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 쾌락을 얻으려 온갖 수단을 부려왔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https://en.wikipedia.org/wiki/Dionysia

17세기 이전까지 libertinism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사회의 어두운 귀퉁이에서는 매춘과 점성술과 마술(witchcraft) 등 비교(occult)가 은밀히 번성하고 있었다. 모든 종류의 불륜과 음탕하고 성도착적인 행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따라 sodomy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Cainites(가인파.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불리어지고 있었다.

카니발(carnival) - 이는 중세 유럽에서 사순절 전에 벌어지는 기독교 전통의 축제이다. 그러나 이는 주신 디오니수스를 기리는 고대 그리스 연극축제에 기원한다고 한다.[11] 뚜라서 로마의 바카스축제(Bacchnalia)아도 관련이 있다.

이 축제는 굶주림의 겨울을 끝내고 봄을 기대하면서 흔히 술마시고, 남겨둔 음식을 상하기전에 실컷 먹고, 퍼레이드와 거리서커스 같은 놀이를 벌리는 행사이다. 일상의 규범과 법칙들과는 반대로 마음대로 방자한 행동을 해도 관대하게 허용된다. 이로서 일상적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공동체로서의 느낌을 공유한다. 특이한 의상, 과장된 신체 표현(코, 배, 남근 등) 그리고 괴이한 가면을 쓴다. 이런 가면과 가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지배계층의 권위를 풍자하고 조롱하는데 시용되었다. 풍자는 사상, 언어, 영혼 등 상위의 기능들을 가치 절하시키고 그 왕좌의 지위를 뺏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a reversal ritual[12]로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충동들이 해방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신을 통해 사회를 갱신하고, 사회적 규범들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된다. 원래의 정체성과 다른 가면을 씀으로 그 연극과 풍자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13] 가장의 하나로 이성복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니발은 일상의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리고 사순절동안 억제해야 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축제이기도 하다. 겨울에서 생식이 이루어지는 봄여름으로 가는 것을 기리는 일종 fertility celebration이라 할 수 있다.

중세 후기에는 축제 때의 행동들이 너무 과격하여 pre-Christian cult가 아닌가 또는 이교(이단)의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교회의 경계를 받기도 하였다.

베니스 카니발이 시초라 한다. 이후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rfl고 유럽과 나중에는 신세계의 식민지로 퍼져 나갔다.

오늘날의 카니발들은 애초의 종교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대규모의 화려한 볼거리로 변모하였다. 대부분, 가면이나 화장으로 분장을 하고, 에로틱하고 기괴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나 대형 인형들을 앞세워 음악에 맞추어 춤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다. 베니스카니발, 니스카니발,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벌, 뉴올리안즈 마디그라 등이 유명하다. 최근의 유명 카니발들은 프리섹스를 암시하는 듯한 성화(sexualization)가 심하다. 여기에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LGBT)의 퀴어카니발이 편승하고 있다.

---

11) Behind the masks. history, making and authencity of Venetian Masks. www.italymask.co.nz.

12) https://en.wikipedia.org/wiki/Carnival#cite_note-Bakhtin-3

13) Frank G. Bosman. Carnival: A reversal of the roles. 12 February 2018. https://frankgbosman.wordpress.com/2018/02/12/carnival-a-reversal-of-the-roles/

3. 르네상스 시대의 libertinism

중세동안 억눌렸던 섹슈얼리티는 드디어 르네상스 시기부터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4세기에 시작된 문예의 르네상스는 섹스에서도 르네상스였다. 중세의 기독교 성문화에서 프리섹스의 혁명이 일어난 셈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주로 사회의 엘리트층에서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선각자들은 인간의 몸과 관능과 감정을 재발견하고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술의 이름"으로 로맨틱한(로마적인), 그러나 실제로는 에로티시즘을 예찬하였다. 기독교 이전에 숭배되고 즐겨졌던 그리스 신들의 섹스이야기들과 나체들이 회화와 조각으로 화려하게 다시 소환되었다. (인간의 몸이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죄가 되었던 것이 이제 죄가 아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찬양되었다. (현대인들이 피렌체를 방문하고 르네상스 미술에 찬탄하는 것은 19세기에 지식인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마치 황금시대인양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학자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모순된 중세"의 말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중세의 특징인 비이성적 사고방식, 가난, 불평등, 무지, 점성술과 마술, 마녀사냥, 종교/정치적 박해, 전쟁 같은 일들이 르네상스시대에 더 심했다고도 한다. 실제 르네상스 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추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작가, 화가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들 등, 극소수의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중세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었으며, 남성은 여성에 폭력적이었다. 당시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을 묶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부부간에는 사랑의 열정이나 에로티시즘은 기대되지 않았다. "로맨틱"은 귀족 남자들과 그의 정부(courtesan) 사이에서만 그 흔적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여성들은 집안에서 정숙하고 우아하게 머물러 있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결혼 밖"에서 성의 해방(프리섹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오늘을 즐겨라"(carpe diem)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부자나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자유로운 섹스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말이었다.

매춘이 광범위하게 성행하였다. 1490년 로마에는 7,000명의 창녀가 있었고, 베니스의 30만 인구 중에 창녀가 11,654명이었다 한다. 사회와 교회는 매춘을 은밀하게 용인하였다. 거리는 사제들과 더불어 매춘부와 소돔인들(sodomites)들이 우굴 대었다 한다. 여기서 소돔인들이란 남색, 수간 같은 성도착행동들과 성적 방탕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교회의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같은 성도착적인 성행위들이 은밀히 유행하였다. 결국 15세기경부터 동성애에 대한 경찰감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가혹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매독이 창궐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공포처럼, 르네상스시대에는 매독이 흑사병, 나병과 더불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르네상스인들은 성적 타락을 언급할 때는 거북해 하면서 라틴어를 사용하거나 완곡

어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명칭을 말할 수 없는 사악함“ 같은 것들이다. 그런 위선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르네상스 시대의 성적 타락은 현대 사회의 성적 타락과 결코 다르지 않다. 죄 된 인간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르네상스를 찬양하려 할 때는 당시의 이면의 성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III. Libertinism의 전개

1. 왕정복고(Restoration) 시대의 libertinism

Libertinism이란 용어는 17세기 영국의 “왕정복고시대의 libertinism”(Restoration libertinism)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17세기 크롬웰의 청교도혁명이 끝나고 왕정이 복고되면서, 청교도적 가치관에 대한 반동이 나타났다. 권력에 복귀한 왕들은 크롬웰이 만들었던 엄격한 법들을 없애고, 사회에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극장들이 다시 열렸다. 다시금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예를 들어 Charles II는 정부들과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였다.[14] (그의 별명은 “The Merry Monarch”였다) 이 방탕주의 철학은 “왕정복고시대의 libertinism”라고 불리운다. 이는 왕정복고 이후 성적으로 해방된 방탕한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당시 성과 쾌락에 관련된 사상은 크게 3가지였다. 서로 대조되는 금욕주의와 Libertinism(방탕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었다. 당시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인간은 자기보존과 이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갖지만, 이런 권리를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절대적 왕권에 양도해야 한다는 이성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금욕을 권고하는 주장이었다. 18세기의 이성주의 철학자 칸트도 성적 절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방탕주의자들(libertinists)은 홉스철학을 비판하면서, 낭만주의자들과 비슷하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사상으로 당시 루터교회(경건주의)와 칼뱅주의(장로교), 청교도 등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카톨릭교회처럼 금욕을 강조하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는 불륜과 소도미를 금하였지만, 남녀는 일부일처제 결혼 내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라고 권장하는 점에서 libertinist들과는 물론 이성주의자들과도 달랐다.

성문화 - 왕족과 귀족들은 libertinism을 즐겼다. 당시 방탕문학이라는 장르가 유행하였는데, 시, 미술, 소설, 연극 등을 통해 Libertinism의 에로티시즘이 표현되었다. 이는 남녀간 연애, 방탕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카니발의 정신(carnivalesque) 등을 묘사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적 libertine으로 영국의 John Wilmot, 2nd Earl of Rochester(1647-1680)가 있는데, 그는 비도덕적인 풍자시와 풍자극을 썼다. 그 대표적

14) KURTULUŞ, Gül. Carnival, Libertinism, Sexual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Restored King in Aphra Behn's the Rover. İnönü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INIJOSS) 2015;4(2):62-74

시는 「이성과 인류에 반하는 호색가」(A Satyr Against Reason and Mankind)이다. 그는 자신이 보좌하던 군주 Charles II에 대한 풍자시를 썼다가 궁중에서 쫓겨났다. 그는 'doctor Bendo'라는 이름으로 돌파리의사 일을 하였다. 그는 여자의 불임을 고친다고 하며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였다. 그는 매독에 걸려 33세에 일찍 죽었다. 방탕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 계몽사상과 Libertinism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이어, 17세기에 서구에서는 계몽사상이 나타나 18세기에는 서구사회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계몽사상가들은 구시대의 기독교적 신념들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나온 것은, 제1차 산업혁명과 농업 개선 및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되고, 고통이 줄어들고,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뉴턴의 물리학과 기계론적 우주관 등 인간 지성이 발달함에 따른 것이었다.

계몽(the Enlightenment)은 이성 또는 “빛”으로 설명되었다. 계몽주의 사상의 목표는 지식, 자유, 그리고 행복(쾌락)이었고, 계몽의 내용은 개인주의, 진보와 과학에 대한 믿음, 자유와 평등, 진보, 관용, 온정, 헌법의 정부, 국가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신론(회의론) 등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은 인간의 발전에 한껏 자만심을 가졌고, 개혁이라는 빛나는 “희망”에 불탔다.

계몽사상가들은 17세기 이후 인간 자유에 대한 계몽철학과 특히 경험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당연히 섹스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였다. 성에 대한 토론은 흔히 당시 성장하던 도시의 상류층 남자들과 고급 매춘부들의 살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엘리트들 사이에 이성적인지만 세속적인 성윤리가 나타났다. 즉 성적 욕망은 도덕적으로 용인할만한 것으로 그리고 쓸모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성적 (합리적) 정신에 따라, (수수께끼 같은) 삶에 있어 쾌락의 역할에 대해, 상호 반대되는 두 가지 경향성이 확인된다. 각각의 대표적인 주장자로서 칸트와 사드가 있다. 칸트는 성적 절제를, 사드는 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성적 추구가 작가와 예술가들의 철학이 되었고 특권(privilege)처럼 되었다. 계몽주의 작가들은 전통적 기독교 성윤리에 반하는 노골적인 성을 묘사한 책을 씀으로 최소한 섹스에 대한 기독교적 죄의식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과 엄격한 프로테스탄트 성 윤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성문화는 점차 개방적이 되어갔다. 프리섹스를 향한 공개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이후에는 libertinism은 그 의미가 좁아져, 도덕적 및 법률로부터 성적으로 “자유”히는 행위. 즉 성적 일탈(transgression) 행동이라는 의미로 국한되어 갔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철학자들은 성 범죄(소도미)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몬테스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보다 그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성문화 - 소수 엘리트들은 libertinism을 말하고 즐기고 있었지만, 다수 일반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적 성윤리에 순응하고 있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정신

(puritanism)과 독일의 경건주의는 사회변화에 따른 성적 타락을 경계하여, 전통적 기독교적 성적 도덕성을 고수하거나 재강화하려 하였다.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백(참회)과 결혼의 종교적 및 사회적 체제를 계몽적 합리성에 맞추어 재조직하는 수준이었다.[15] 당시 만연하던 매독을 신의 징벌로 보는 경향에 따라, 표면적으로 성행동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덕을 적용함에 있어 사생활에 대한 강조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이미 다양해지고 있었다.

17세기에 성적 쾌락에 대한 출판물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섹스메뉴얼로서 1680년대에 출판된『Aristotle's Masterpiece』은 임신하지 않고 성을 즐기는 매뉴얼이었다. 이 책의 1766년판의 경매에서 보여준 인기는 18세기 사랑과 욕망에 개방된 정신과 태도, 즉 Enlightenment erotica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18세기 전반부에 본격적 포르노 서적도 나타났다. 1749년 출판된『Fanny Hill: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라는 제목의 매춘부에 대한 포르노 소설에는 이성애, 동성애, 매질(사도마조히즘) 등이 묘사되고 있다. 프리섹스의 이미지는 당시 돈 환(돈 지오반니), 카사노바, 시라노 드 벨주락 같은 난봉꾼 내지 호색가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산업혁명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매춘이 성행하였다. 직업으로서 매춘은 두 형태로 진화하였다. 즉 거리의 매춘부(prostitute. 길거리와 매음굴(brothel)의 매춘부)와 고급 매춘부(courtesan. 개인 살롱을 운영하며 선택된 부자 손님만 받는)로 구분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차별받았고, 또 발견되면 처벌받았다. 그들은 주변부의 지위로 내쫓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bertinist들 중에는 동성애 경험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극장에 배우들의 이성복장이 등장하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 남성 역할을 한 여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성 문화는 예술을 통해서 드러났다, 당시 성문화는 로코코 미술에 그려진 상류 여성의 내실(boudoir) 풍경에서 잘 암시되고 있다. 로코코란 18세기 유럽의 예술양식으로, 바로크와 비슷한 시대에 발생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로코코 양식은 특히 회화에서 두드러지는데, 규모가 작고, 색깔이 정교하고, 밝은 파스텔 풍이다. 그림의 내용은 대개 현란한 스타일, 퇴폐, 부유함의 과시, 그리고 지루함과 한가함 속의 품위 없는 경박한 성적 유희 등등을 혼합한 것이었다. 초상화에는 귀족들의 정부를 그린 것이 많은데, (인체의 아름다움보다) 유혹적인 누드가 많다. 이런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플레이보이”(The 18th Century Playboy)라는 말을 듣는다.[16] 심지어 개가 주인을 핥는 모습을 에로틱하게 그렸다. 그런 로코코 회화는 육체적 쾌락의 역할을 확인하는 급진적 유물론적 사고를 나타낸다.[17] 이런 문화는 표면적으론 순결을 강조하고 성에 대한 규제

15) Ferguson, Gary. Baroque Sexualities. The Oxford Handbook of the Baroque. Aug 2018. DOI: 10.1093/oxfordhb/9780190678449.013.9

16) Longak, Ryan. Rococo: The 18th Century Playboy. January 17, 2016. https://rclong2.wordpress.com/2016/01/17/rococo-the-18th-century-playboy/

17) Milam, Jennifer. Rococo Representations of Interspecies Sensuality and the Pursuit of Volupté. The Art Bulletin 97(2):192-209. 2015

를 많이 만들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매춘 같은 문화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문란한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드 후작(Marquis de Sade 1740-1814) - 계몽주의 시대에 극단적 libertinism 철학자로서 "악명 높은" 사드(Marquis de Sade 1740-1814)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세기 성혁명의 선구자로 찬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귀족으로 혁명적 정치가이자, 그 자신 "방탕아"로서 일탈된 섹스로 유명한 작가 겸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쾌락주의적 철학과 포르노를 결합하여 환상적이고 폭력적인 섹스 그리고 소도미와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들을 썼다. 그는 쾌락에 대한 복잡한 철학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라 도착적 성행위도 자연성(naturaliness)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드는 온갖 비윤리적인 성적 쾌락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드의 도착적 철학은 계몽시대에 튀어나온 성행동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이다. 사드 철학은 프랑스 계몽주의의 핵심인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과학주의 두 가지를 다 표방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철학자 Del Noce는 사드의 극단적 음란(외설)을 이해하는데 과학주의(scienticism)가 그 핵심이라 하였다. 즉 하나님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가 되고, 성 억압은 나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현재 성행동에 대한 특정 개념에 남아있는데, 19세기 성학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따라 "사디즘"(sadism 가학증)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드가 실제 즐긴 성행동은 단지 하녀를 때리거나, 여러 창녀들과 성파티를 한 수준이었다) 그는 정부가 매춘업소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 예방이었다.

당연히 사드의 비윤리적 성적 쾌락추구는 당시 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박해를 초래하였다. 그는 소도미와 기타 성도착적 행동과 포르노를 썼다는 죄목으로 평생 74년 중 무려 32년간을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 거기에서 사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성도착에 대한 것을 글로 표현하였다. 사드에게는 성적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었다. 대표작은 『소돔에서의 120일』(1775)이다. 그의 소설들은 한 때 성적 무경험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고, 성적 흥분을 노리는 포르노가 되었다. 1803년 63세인 그는 정신병자로 진단되어 마지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 그는 늙었어도 병원 직원의 딸인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가 74세로 정신병원에서 죽은 후 그의 "악마적" 두개골은 골상학 연구를 위해 보존되었다. 그의 아들은 그가 남긴 유고를 모두 불태웠다.

그는 시대의 이단자로서, 현대 성혁명가들은 그를 에로티시즘의 창시자, 탁월한 급진적 프랑스 계몽주의 성혁명의 선구자로 본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 종교 또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옹호하면서, 극단적 성적 자유를 대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드의 과학관과 섹슈얼리티 사상을 20세기에 처음으로 발견하고 주장한 사람이 정신분석가이자 공산주의자로서 『성혁명』이라는 책을 쓴 빌헬름 라이히이다. 20세기 초 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사드를 자신들의 선구자로 재발견하고 있다. 푸코는 이 사드의 발상을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성에 대한 유산으로 본다. 라캉은 쾌락에 대한 사드의 논점

https://doi.org/10.1080/00043079.2015.979104 CrossMark LogoCrossMark

을 칸트의 보수적 성윤리와 대비하면서 새롭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롤랑 바르트와 쟈크 데리다도 사드에 대한 연구서를 썼다. 시몬 보바르는 사드의 업적을 자유에 대한 급진적 철학으로 현대 실존주의의 선구라 하였다. 이처럼 거의 모든 서구의 지식인들은 사드를 새삼 옹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개 좌파 지식인들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Michel Onfray는 사드를 영웅시하는 것은 지적으로 괴상한 짓이라 비판한다. 또 다른 비판으로 사드의 글들이 여성 혐오적 포르노라는 비판도 있고, 그가 기독교와 계몽적 유물론을 모두 부인하는 허무주의자라고도 한다.

장차 세상은 사드가 주장하는 세상으로 변할까? 지금 좌파 성혁명가들은 사드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수주의자들과 크리스천들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분명히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의학적 임상 연구들은 불륜과 성도착과 LGBT 등등은 건강에 해롭다(생명을 훼손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성 혁명이 성공하면, 아무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우려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낭만주의(浪漫主義 Romanticism)

18세기 말에 계몽주의에 뒤따라 낭만주의가 나타났다. 낭만주의는 예술적, 문학적 음악적 및 지적 운동으로 19세기 말(1890)까지 왕성하였다. 흔히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감정은 정신의학적으로 본능의 실현할 때 또는 본능의 실현을 방해할 때 나타나는 정신신체적 반응(psycho-somatic response)이라 할 수 있다. 본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성본능과 공격성이다. 이를 실현하면 쾌락이, 막히면 불쾌(분노, 불안, 슬픔 등)가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의 발견이란 본능의 발견과 그 인정이라 할 수 있다. 낭만주의는 진정한 미적 경험으로, 이성보다 강렬한 감정을 중시하였다. 이는 결국 관능과 로맨스의 발견이다. 관능이란 본능과 관련된다. 본능은 생물학적이며 그래서 자연이며 원시적이며, 개인적으로는 소아기적이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미적 범주에 접했을 때 경험하는 순전한 희열, 불안, 공포, 경외 등을 강조하며(미학적이다),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운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였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과거(원시)와 자연을 미화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하였다. 낭만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초월과 환상과 자연(Nature)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심오한 종교적, 신비주의적 감정을 중시하였다. 1790년대 초의 독일 낭만주의의 키워드는 이미 “영원에 대한 뜨거운 갈증”,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추구”, “이름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 “세계정신에 대한 통찰”, “신에 대한 동경” 등이었다. 이러한 낭만주의는 당시 신학에도 반영되었다.[18] 그러나 낭만주의는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환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계몽주의와 더불어 낭만주의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종교에 의해

18) 독일의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낭만주의를 신학에 반영함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억압된 인간성, 즉 감정을 해방시키자는 사조의 발달과 정치사회적 혁명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왕들의 지배를 거부하는 영국의 명예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전쟁), 그리고 그런 혁명의 결정판인 프랑스혁명이 나타났다. 프랑스혁명은 폭력과 반동으로 끝났지만, 미국의 독립혁명은 그 기독교 정신 때문인지 명예롭게 지속되었다.

성문화 - 낭만적 연애시들이 나오면서 "자유연애 "(free love)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금씩 성에 허용적 사회가 되어져 갔다. 그만큼 기독교의 성도덕도 훼손되어 갔다.[19]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한 도시에 매춘이 성행하였다.

이런 감정 중시의 문화는 특히 문학에서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74)이 있다. 이를 계기로 책의 시장에서 구애, 결혼, 정조, 그리고 여성의 독립 등이 인기 있던 주제가 되었다. 작가들은 자유연애나 유혹의 위험성, 매춘, 난봉꾼(libertines)과 유명인의 성적 행태, 음란물 등, 노골적인 성을 묘사한 책을 출판하였다. 유명한 예는 계몽주의 작가 Samuel Richardson의 『Clarissa』, John Cleland의 『Fanny Hill: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1749), 사드의 1791년 소설 『Justine』(1791) 등이다. 더구나 에로물(erotica)의 출판은 금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 인쇄산업과 철도 등의 발달로 빠르게 넓게 유럽에 퍼져 갔다.

LGBTQ에 관련하여서는 성적 자유론자들 중에 동성애 경험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Fanny Hill: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에는 이성애, 동성애, 매질(사도마조히즘) 등이 표현되고 있었다. 극장에 배우들의 이성복장이 등장하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 남성 역할을 한 여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발견되면 처벌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18세기 사랑과 성적 욕망에 개방된 정신과 태도, 즉 Enlightenment erotica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적 및 사회적 카오스였고, 매독이 만연하였다. 기독교는 이런 변화된 풍조와 갈등하였다. 지식인들은 섹스에 대한 기독교적 죄의식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4. 프랑스 혁명과 성

프랑스혁명은 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다. 혁명 동안 보통 사람들은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liberty), 평등(equality), 형제애 (fraternity)라는 아름다운 용어에 매혹되었다. 혁명주의자들은 그들의 지배자였던 왕족과 귀족 그리고 프랑스 카톨릭교회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혁명은 10여년만에 유혈이 낭자한 채 끝났다. 실로 혁명은 국가차원의 폭력 테러였다. 당시 혁명가들은 진작에 자유는 평등을 희생함으로 얻어지며, 평등은 자유를 희생함으로 얻어지고, 박애는 정의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20]

---

19) Fenn, Violet. Historical Sex: The Victorians - disease, pornography and royal sex chairs. Metro 28 Jun 2017. https://metro.co.uk/2017/06/28/violet-fenn-historical-sex-the-victorians-disease-pornography-and-royal-sex-chairs-6664768/

성문화 - 프랑스 혁명은 인권을 위한 혁명이었으나, 성의 해방은 물론 여성의 해방을 위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 1789년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rights of man and citizen) 선언에는 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성혁명이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 정치적 혁명에서 "자유는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나오고.[21] 이것이 이후 성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 당시 성 혁명의 씨도 뿌려졌던 것이다.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서 사드 (Marquis de Sade 1740-1814)는 "자유"에 기초하여 상상 가능한 모든 성도착에 대한 것을 글로 표현하였다. 그는 소설을 통해 성적 자유에서 사디즘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이 유혈로 점철되었음에서 그대로 보여 준 바와 같다.

그러나 혁명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전통적 성적 관행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과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었고, 여성도 여전히 억압받았다. 휴머니즘이나 계몽은 남자 엘리트들만의 일이었다. 칸트 같은 계몽철학자들이나 계몽사상가들마저도 여자의 공간은 여전히 가정 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칸트나 루소, 심지어 19세기의 쇼펜하우어나 니체 등 철학자들을 여성혐오자라고 생각한다) 당시 낭만주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남녀불평등과 여성의 억압에 있어서는 대중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혁명의 "여신"이 자유와 평등을 향한 해방을 이끌었지만 "여성들의 평등권"은 개선되지 못했다. (마치 유태인만을 배제한 나치 전체주의 국가 같았다)

서구의 성 역사 속에서 이 시기에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 또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대중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현재 누리는 성적 자유, 자율성, 사생활(privacy)에 대한 태도 등은, 18세기 광범위한 사회적 및 지적 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22]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Augusto Del Noce (1910-1989)의 지적대로, 현대 성해방의 시작은 프랑스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였다. ("해방"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도 역시 이때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결과는 개인적 및 사회적 카오스였다. 매독이 만연하고 있었다. (20세기 성혁명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징조가 이미 최소한 의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에 방탕주의-쾌락주의로 유명한 난봉꾼(libertines)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알려져 있다: 프랑스 소설가 시라노 드 벨주락, 시인 바이런. 이탈리아 모험가 지아코모 카사노바, 등. Libertine들은 여러 도시들로 성적 모험의 여행을 하곤 하였는데,

---

20) Kuby, Gabriele.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Destruction of Freedom in the Name of Freedom. 2015.

21) Schiebinger. Londa, Theories of Gender and Race, in Nature's Body: Sexual 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Science, Pandora, London, 1993. P.143

22) Dabhoiwala, Faramerz. The Origins of Sex: A History of the First Sexual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eviewed by Cristian Berco. H-Albion. December, 2012
https://networks.h-net.org/node/16749/reviews/18451/berco-dabhoiwala-origins-sex-history-first-sexual-revolution

실상 그 모험의 대상은 대개 매춘부였다. 돈 환(Don Juan)은 가상 인물로서 방탕주의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모차르트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돈 지오반니」를 작곡하였는데, (그가 당시 엄격하고 권위적이지만 위선적인 비엔나 문화에 냉소적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돈 지오반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5. 19세기의 Libertinism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

현대인은 대개 빅토리아 시대를 청교도적, 도덕적 그리고 매우 억압적인 성적 기준을 가진 사회로 본다. 빅토리아시대의 중산층 부르주아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단추를 꽉 채운 엄격하고 우아한 사회적 매너"이다. 이 시대의 부르주아는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이었다. 그들은 섹슈얼리티를 정체성의 한 근거로 감았다. 즉 자신들을 귀족들과, 또한 농부나 새로 출현하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구분하는 근거로 엄격한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였다. 부르주아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적으로 엄격한 가족체제를 만들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의 남편은 자유롭게 창가를 들락거리며 마음대로 성을 즐기었다. 반면 부인은 사적인 가정 안에 갇힌채 열정 없이 생식만 하는 존재로서, 집안에서 아이들과 순수하고 안전하게 비치된 우아한 가구 같은 존재였다. 남편들은 아내는 월 1회의 섹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집안에서는 책상이나 피아노의 "다리"는 외설스럽게 보이지 않게 천으로 감쌌다. 히스테리가 전형적인 빅토리아시대의 여성의 질병이 되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성적 불만 때문으로 보았다)

성문화 - 19세기 중반부터 중세부터 내려오던 성 억압이 경감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은 끓어오르는 성적 욕망과 위선적 억압이 충돌하는 시대가 되었다.[23] 그 결과는 주부들의 히스테리였다.

성 욕구를 억제하여 공개적으로는 우아하였지만, 이면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문란하였다. 대도시에 향락산업이 번성하였다. 그리하여 매춘, 동성애, 자위 등등이 이성애적 생식과 부르주아 도덕성과 사회질서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위를 못하게 정조대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다)

19세기에 매춘은 거대 산업이 되었다.[24] 1887년 의학학술지 The Lancet은 2백만 인구의 런던에 약 8만명의 창녀가 있다고 추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런던 총 인구의 3% 였다. 그리하여 매춘은 "막강한 사회적 악"(the great social evil)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 런던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은 남자 불량배들의 지배를 받으며 매춘을 하면서 술중독과 절망에 찌들어 갔다. 매춘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도 있었다.

---

23) Fenn, Violet. Historical Sex: The Victorians – disease, pornography and royal sex chairs. Metro 28 Jun 2017. https://metro.co.uk/2017/06/28/violet-fenn-historical-sex-the-victorians-disease-pornography-and-royal-sex-chairs-6664768/

24) Laqueur T, The social Evil, the Solitary Vice and Pouring Tea, in Feher M, Naddaff N, Tazi N, (eds), (1989), Zone, Fragments for a History of the Human Body: Volume 3, Urzone, New York, P.337.

매춘은 오랫동안 대영제국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매춘은 당시 신성모독, 술 취함, 기타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 전체가 윤리적으로 부패하였던 것이다.

자연히 성병 매독 창궐하였고, 손님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감염을 일으켰다. 뇌매독에 의한 정신병자들이 정신요양원에 넘쳐 났다. 당시 성병은 비도덕성에 대한 천벌이었다. 성병이 무서워 사람들은 성욕을 억제하려 하였다. 따라서 자위가 안전한 섹스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집착하였다. 깨끗한 처녀가 대단히 소망스러운 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속이기도 쉬웠다.

이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혼란과 위선은 이후 오랫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빅토리아 시대에 libertinism의 귀결인 일차 성혁명이 이미 싹트고 있었다.

데카당스 (Decadence)

16세기 이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libertinism은 19세기에 문란한 성문화와 데카당스(퇴폐)[25]로 나타난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Camille Paglia는 '낭만주의는 거의 즉시 decadence (퇴폐)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빅토리아시대 후반부는 퇴폐의 시대가 시작된 시대이기도 하다. 데카당스는 처음 프랑스에서 번성한 후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퍼졌다.

퇴폐자(Decadents)는 계몽시대 libertines(방탕아들)의 후손이다.[26] 그들은 도덕이 더 이상 신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보는, 그릐고 세상에서 윤리를 따를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성적 자유는 그런 속세적 환경에서의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당연한 파생물이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문란, 도덕적 허무주의 등은 데카당스 문화의 토양이 되었다.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허무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허무주의(nihilism)[27]가 데카당스의 논리라고도 한다. 작가들은 데카당스의 방탕한 성을 허무주

---

25) 데카당스(타락)의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자 몬테스키외의 저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쇠퇴가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기준의 상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라틴 학자 Désiré Nisard는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여, 빅토르 위고와 낭만주의를 전반적으로 로마의 타락에 비유했다. 그가 말한 타락은 인간의 craft(기술, 장인성)와 문화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문화가 타락할 때 보여주는 징후는, 묘사에 대한 관심, 문학과 예술의 전통적인 규칙에 대한 고수 부족, 사치스러운 언어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들로 이들은 모두 Decadent 운동의 씨앗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데카당스란 제국 또는 국가 같은 큰 사회적 차원에서 엘리트들 사이에 통치에 있어 표준, 도덕, 종교적 신앙, 명예, 훈육 또는 기술 등에서 타락한 상태를 말한다. 범위를 넓히면 예술, 문예〈 과학, 기술, 직업윤리 또는 자기-멋대로(self-indulgent)의 행동 등에서의 타락-쇠퇴, 퇴보, 방탕주의(자유주의) 행동 등등을 말한다. 19세기 말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악과 위선 속에서 표준, 도덕, 위엄, 종교적 신앙, 등에서 타락 상태를 의미한다.

예술에 있어서 데카당스란 미적 이념을 따르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19 세기 후반의 예술 및 문학 운동으로, 과잉과 인공적인 것의 미학이다. 이 운동은 자기 혐오감, 세상에 대한 혐오감, 일반적인 회의주의, 변태에서의 쾌락-기쁨, 조잡한 유머의 사용, 논리와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 창의력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 등이 특징이다. 예술가들은 관능적인 자극이나 도취를 추구하는 퇴폐적인 사상을 상징주의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26) Hawthorne, Melanie. Chapter 12. The Sexual Psychology of Decadence. In: Jane Desmarais et al. (ed) Deca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p 200–215.
DOI: https://doi.org/10.1017/9781108550826.013

27) Fernanda, M, Valencia M. Nihilism: A Logic of the Decadence that Afects Human Live. https://orcid.org/0000-0001-9897-1945

의적으로 그러나 미학적으로 그렸다.

문학에서 데카당스란 말은 19세기 말 (세기말 fin de siècle) 상징주의(symbolism)와 미학운동(Aesthetic movement)과 관련된 작가들에 대해 적대적 비판가들이 붙인 이름이다. 즉 데카당스란, 암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조형 그 자체에 탐닉하는 예술을 말한다. 그러나 이후 이 명칭은 작가들 자신들에 의해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데카당스 운동의 핵심은, 예술은 자연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견해였다. 이 때 자연이란 생물학적 본성과 도덕 및 성행위의 표준적 또는 "자연적" 규범을 의미한다. Decadents들은 자연보다 교묘한 인위적 솜씨(artifice)를 찬양하며, 단순성보다 정교(sophistication)한 것을 찬양하였다.

이미 사드 후작이 18세기 libertinism(방탕)을 실현하였는데, 세기말 현상은 그 사드의 방탕의 레파토리를 더욱 확장하였다. 새디즘, 마조히즘, 수간, 동성애, 레스비어니즘(여자 동성애), 관음증, 페티시즘, 부비기, 소아성애, 이성복장 도착증, vampirism, priapism, 등등, 모든 도착증들이 데카당들의 관심사에 포함되었다. 이런 행위들은 실제 경험보다, 대개 소설, 희곡, 시 같은 문학을 통해 추구되었다. (사고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쨌든 타부시되는 주제들을 과감하게 토론하는 것이 데카당스 문학의 특징이다. 어떤 작가들은 the Gothic novel[28](공포, 죽음, 로맨스 등을 버무린 소설)의 전통과 Edgar Allan Poe의 시와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

보들레르, 말라르메, 오스카 와일드, 베를렌 등이 대표적 데카당스 작가들이다. 특히 Oscar Wilde (1854-1900)는 유미주의자(또는 탐미파 Aestheticist)라고도 한다. 그는 아일랜드 시인, 극작가 및 미학자이다. 그 자신 쾌락주의자로서 동성애로 재판받고 투옥됨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작 『The Picture of Dorian Gray』(1890)의 주제는 데카당스, 이중성, 그리고 미학이다. 그 소설은 libertine의 경망한 행동과 통제되지 않은 쾌락 추구가 어떻게 궁극적인 재앙을 초래하여 한 남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지를 '미학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초기 저술 쾌락의 철학(philosophy of pleasure)에 대한 어두운 주석(dark counterpoint)을 썼다.

La Belle Époque

프랑스에서 "La Belle Époque"("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 (1871-1914)라고 부르는 시절은 1871년 보불전쟁이 끝나고 일차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까지 이다(빅토리아시대와 약간 겹친다) 이 시절 동안 프랑스는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다. 덩달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적 창조와 예술도 꽃피웠다. 자연히 성문화도 개방적이고 화려하고 쾌락적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위선적이 되었다. 이 시대를 나중에 회고적으로 "좋은 시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좋은 시절을 보냈다) 이 시대의 성적 혼란과 위선은 이후 오랫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좋은 시절은 밝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절의 퇴폐적 자본주의 문화

28) 19세기 소설가 Mary Shelley(Frankenstein의 작가), E. T. A. Hoffmann, Edgar Allan Poe, Charles Dickens, Bram Stoker(Dracular 작가) 시인 Samuel Taylor Coleridge 등이 포함된다.

는 새로이 등장하던 공산주의(마르크시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았고, 유럽제국들의 식민지 착취문제도 있다. 그리하여 당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성문화 - "아름다운 시절"은 낭만적 자유연애(프리섹스)와 화려하고 쾌락적인 성문화가 특징적이다. 당시 파리의 성문화도 역시 매춘업소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당시 매춘업소는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하여 demi-monde (half-world, 별세계)라 불리었다. 이들은 쾌락을 즐기는 위험한 세계였다. 고급 매춘업소에서 엘리트남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소유한 Demimondaine(사교계 고급 매춘부. courtesan)들의 접대를 즐기는 곳이었다. (고급 매춘부는 길거리의 prostitute와 구별되는 존재였다)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쥬세페 베르디의 1853년 오페라 『La traviata』 (타락한 여자라는 의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무대는 demi-monde 였고 주인공 비올레타는 demimondaine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자도 이곳에 와서 "쾌락의 밤"(the hedonistic nightlife)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런 여자는 곧바로 노출되어 지위를 잃었다. 엘리트남자에게는 demi-monde와 demimondaine은 부인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적 "의무"와는 구별되는 외딴 별세계로 거기서 쾌락적 성적 문란을 즐기면서 음주, 마약, 도박, 극장과 발레 감상, 경마, 고급 패션, 등에 빠져 살았다. 일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면서 "라 트라비아타"의 시대는 사라진다. 그러나 매춘이나 정부를 두는 관행은 없어지지는 않는다. 20세기 성혁명은 이 시대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IV. 20세기 성혁명

성혁명(sexual revolution)은 성해방(sexual liberation)이라고도 한다. 이는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행동에서 전통적 윤리 내지 전통적 기준(code)에 도전하는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프리섹스(free sex) 또는 Free Love이다. 17세기 유럽 상류계층들에 국한되어 거론되고 실행되던 libertinism, 즉 방탕문화가 19세기에는 부르주아들의 데카당스 퇴폐문화로, 그리고 20세기에는 일반 대중 속으로 퍼져 나가 성혁명과 프리섹스라는 사회현상으로 전개되었다.

성혁명이란 용어는 1960년대 사회적 매체들이 성도덕과 성행동에 있어 사회-철학-정치적으로 '허용적' 사회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현상에 대해 이름붙인 것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각과 실행에서의 성혁명이 1920년대에 있었다고 보고 이를 일차 성혁명이라고 부르고, 1960년대에 나타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성혁명을 이차 성혁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실은 성적 혁명은 역사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여러 차례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혁명의 20세기는 프리섹스와 불륜, 성욕과다증(Hypersexuality) 내지 성중독(sex addiction)의 문화, Hookup culture,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인정, 등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1. 소련의 성혁명

역사적으로 흔히 간과되는 성혁명은 러시아 공산혁명 때의 성혁명적 사건이다. 이는 혁명에 성공한 1918년에 시작되어 약 10여년간 지속되었다. 1917년 이전 수백년동안 러시아는 차르가 다스리는 독재국가였고, 사람들은 그동안 성폭력과 성 억압에 시달렸다.[29] 남녀 차별이 극심하였다. 귀족여성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허락 없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여행하지 못하였다. 가정폭력도 흔했다. 동성애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볼셰비키들이 오기 전, 러시아에서는, 예술가들 집단에서는 이성복장 도착(Cross-dressing, travesti)나, 게이 파티가 유행하였었다.

Karl Marx (1818-1883)와 Friedrich Engels(1820-1895)는 19세기 초 공산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퍼트렸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doctrine들을 종교적 최고 지위로 높였다. 이는 인간성 중의 초인간적 폭력의 잠재성을 끌어내어 지구 상에 피의 테러와 파괴를 불러왔다. 그들은 여성 문제를 계급의 이슈로 재해석하였다. 1884년 엥겔스는 “첫 계급억압은 남자에 의한 여자에 대한 억압이었다”고 하였다.[30]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잡았다. 레닌과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엥겔스의 생각[31]에 따라 첫 계급투쟁이 일어나야 할 곳이 결혼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역사상 가장 성해방적 사회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직후의 소련사회였다.[32] 서유럽에서 1920년대에 성혁명이 일어났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미 1917년 이미 성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33] 혁명가들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부르주아 도덕”은 계급 없는 사회의 성취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종교(기독교)와 그에 기반한 가정을 없애고, 국가를 유토피아적인 계급사회로 변환시키고자 하였다. 혁명으로 러시아 정교회의 성에 대한 통제는 살아졌다. 교회결혼식은 없어졌다. 1918년에 “결혼제도의 철폐”, “시민연합(On civil partnership. 동거를 의미), 자녀 및 소유”에 대한 법 등이 제정되었다.

러시아 혁명 초기, 볼셰비키들 중 성혁명의 지도자는 Alexandra Kollontai(1872-1952)였다. 그녀는 상페테르부르그 혁명위원회와 레닌 치하 공공복지

---

29) Manaev G, Chalyan D. How sexual revolution exploded (and imploded) across 1920s Russia. HISTORY. May 14 2018.
https://www.rbth.com/history/328265-russian-sexual-revolution

30) Engels, Friedrich.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Prioject Gutenberg, 1922. http://www.gutenberg.org/files/33111/33111-h/33111-h.htm

31) Engels, Friedrich.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Prioject Gutenberg, 1922. http://www.gutenberg.org/files/33111/33111-h/33111-h.htm

32) Russia's sexual revolution after 1917. Soialist Workers. Issue No. 2189. 16 Feb 2010, https://socialistworker.co.uk/art/19929/Russias+sexual+revolution+after+1917

33) Manaev, Georgy, Daniel Challyan. How sexual revolution exploded (and imploded) across 1920s Russia. HISTORY, May 2018.
https://www.rbth.com/history/328265-russian-sexual-revolution

인민위원회의 첫 여성이었다. 그녀의 주도로 엄청난 혁명이 진행되었다. 공공 주거(communal houses)가 설립되었고, 이혼과 낙태가 법제화되었고,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과 매춘 사이의 선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연애가 장려되었다. Kollontai는 "신여성"(new woma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신여성은 결혼, 가사 및 육아에의 억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하기 위해 공공식당(communal dining hall)을 설립하여 아이들과 시민들을 먹였다. 평소 여성들이 맡았던 어린이 교육(성교육까지), 음식. 주거, 복지 등등, 모든 잡일들은 사회와 국가가 맡았다. 또한 Kollontai에게는 사랑도 역시 해방되어야 하였다. 그녀 이론은 "a glass of water"였다, 사랑, 즉 섹스는 "물 한잔"을 요청하듯 쉽게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그녀의 사상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혼도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여자가 요구하면 어제든 이혼이 가능해 졌다. 농부여성들은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었다. 낙태도 합법화되었다. 남녀는 법아래 평등해졌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해체하고 집단으로 거주시키고, 여자도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고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집단으로 키웠다. (어린이들의 집단 양육은 복종적 공산주의자 시민을 키우기 위함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Colin Wilson[34]에 의하면, 혁명 초기 레닌은 프리섹스를 허용하고, 모스크바 강변에 누드비치를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서구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즉 정부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침범당하지 않는 한 성에 대해 절대적 불간섭 정책을 사용했다. 1922년 형법에서 성행동에 대한 모든 조회는 사라졌다. 매춘도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는 창녀들을 쉽게 치료받게 해 주었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였다. 성범죄는 "생명, 건강, 자유, 위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강간은 흔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에 귀족 또는 부르주아였던 여성들에게 프로레타리아 남자들이 성폭력을 해도 이는 "계급 정의"(class justice)로 간주되었다. 동성애, 소도미, 기타 성적 만족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소련의 법은 전적으로 "자연적" 성교으로 취급하였다. 자연히 게이와 레스비언의 삶이 번성하였다. 여성의 겨우 동성혼도 인정되었다. 이런 급진적 변화는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는 성혁명은 최고조에 있었다. 당시의 이런 놀라운 급진적 혁명은 20세기 후반의 성혁명 못지않다.

그러나 오랜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았다. 전통의 파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적 문란이 나타났다. 남자드에서 성병이 창궐하였다. 가정 파괴로 소련에서는 집 없는 고아들이 양산되었다. 공식 보고에 의하면 1923년까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불륜의 자식이었다. 그들은 영아로서 버려졌다.

또한 소련은 이런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너무 가난하였다. 또한 러시아 혁명가들은 계속 이전의 차르 지지자들과 전쟁을 해야 했다. 가난과 후퇴가 나타났다. 결국

34) Wilson, Colin. Russia's sexual revolution after 1917. Soialist Workers. https://socialistworker.co.uk/art/19929/Russias+sexual+revolution+after+1917

노동자계급은 황폐화 되었다. 볼세비키는 사람들을 가족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으나, 가난 때문에 다수에게는 가족이 유일한 선택이 되었다. 소련은 공산혁명은 물론 성혁명도 서구의 부자 나라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그런 나라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래 저래 볼세비키는 견디지 못해, 더 선진화된 나라들이 사회주의화 될 때까지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이 성혁명적 실험은 10여년밖에 지속하지 못하였다.

서구에서 성해방이 한창 진행될 때 소련은 도로 전통가치를 증진하기 시작하였다. 옛 방식이 되살아났다. 가족이 다시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었다. 소멸되었던 결혼법이 다시 돌아왔다. "의무적 가족"이 다시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 양육의 집단화는 중단되었고, 양육책임은 다시 부모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다 1930년대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더 황급히 섹스에 관해서 전통으로 회귀하였다. 스탈린은 프리섹스, 나체 수영장,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였다. 거리 퍼레이드에서 "수치심을 버려라"는 구호와 더불어 유행하던 공공적 nudity도 억제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 정부는 낙태를 금하고 이혼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소련은 다시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여성인권운동은 억제되었고, 여성에 대한 교육도 억제되었다. 여자들은 노동자 남편들을 위한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되돌아 왔다. Kollontai의 "신여성"은 단지 10여년간만 새로웠을 뿐이었다. 결국 여성은 여전히 혁명도 해야 되고 어머니-부인-요리사-청소부 역할도 해야 했다. 국가는 돈이 없어 사람살기는 더 어려워 졌고,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의 매춘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혁명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자율성을 위해 과거의 "권위주의적" 학교제도를 파괴했는데, 이제 도로 권위주의적 교육으로 번복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금욕주의"가 소련 젊은이들의 프리섹스를 억압하였다.

동성애는 다시 범죄가 되었다. 1934년 주요도시에 동성애자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다. 게이는 8년 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동성애자들은 다시 스스로를 감추었다. 그들의 자살이 증가하였다. 반동성애 담론은 이차대전 때 러시아와 나치 독일 간 전시 선전에 사용되었다. 스탈린은 "동성애를 없애면, 파시즘은 살아질 것이다"고 했고, 히틀러는 동성애는 "공산주의 타락"이라 불렀다.

이러한 스탈린의 "배신"과 소련의 "후퇴"를 목격한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 실망 하였다. 특히 정신분석가이자 공산주의자이자 성혁명 이론가인 Wilhelm Reich는 분노하였는데,[35] 그 이유는 이러한 도덕적 과잉 조처들이 혁명을 위협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Engel처럼 "사회의 성적 과정(sexual process)은 항상 문화적 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이 시작한 성혁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성혁명적 문화 내지 libertinism의 문화는 인류가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의 성혁명가들이 깊이 숙고할 부분이라고 본다.

---

35) Reich, Wilhelm. The Sexual Revolution: Toward as Self-Regulating Character Structur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4.

2. 일차 성혁명

역사적인 일차성혁명은 1920년대에 있었다. (한편 이차성혁명은 1960년대의 성혁명이다)

일차성혁명은 세계적인 전쟁과 크게 관련있어 보인다. 전쟁동안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매춘이지만 자유로운 성을 경험하였고, 전쟁통에 전통이 파괴되었고, 전후 (전쟁을 통해 크게 발달한) 현대 기술발달로 자동차, 비행, 전화, 영화, 라디오, 가전제품 등 신기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가 대중 미디어에 나와 대기업의 상품을 광고하였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토키영화가 등장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모던 스타일과 정교한 공예기술과 고급재료를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이 사치, 매혹, 풍요,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도와 1920년대 중반에 이미 독일에 번영이 왔다. 독일은 이때를 the "Golden Twenties".라 부른다.

그리하여 전후에 전통을 깬 “근대modernity”와 관련된 새롭고 신기한 것들과 더불어 재즈, 댄스 같은 떠들썩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리에 대서양을 오가며 교환되었다.

성문화 -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억압되고 누적되어오던 성적 욕망이 전후 경제발전의 사회변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특징적 현상으로 미국의 재즈와 찰스턴 같은 춤이 유럽으로 전해져, 캬바레에서 유행하였다. 전시 영국의 여성들의 플래퍼 패션[36]이 미국과 유럽으로 전해졌다. 플래퍼(flapper) 여성들이 당시 성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플레퍼 패션의 여자들이 진하게 화장하고, 자동차를 몰며 자유롭게 이동하며, 바에서 재즈를 들으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고, 캬바레에서 춤을 즐기었다. 플레퍼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성적 규범을 조롱하였고, 섹스를 “casual manner”로 생각하였다.[37] 이러한 개방적 성으로의 변화를 두고 성혁명이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 한다. 독일의 경우, 당시는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였고, 성혁명적 티폐현상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나치가 1933년경 정권을 잡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현상이 서구 대도시들 즉, 베를린, 시키고, 런던, LA, 뉴욕, 파리, 시드니 등지에서 두드러졌다. 그 문화는 흔히 퇴폐적이고 도덕적으로 파괴적이었다고 비판된다. 이 시대를 미국에서는 소위 “the Roaring Twenties” (마시며 떠들어대는 20년대) 또는 “the Jazz Age”라 했고, 프랑스에서는 “the “années folles” (“Crazy Years”)라 했다. 그 정신은 전통의 붕괴와 근대성(modernity)에 매혹당함이었다. 최신 과학과 산업 기술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당연히 이런 반문화에 대한 반동이 있었다. 나이든 보수주의자들은 플래퍼 의상이 거의 벗은 것이라 하며, 그런 여자들을 경박하고 무모하고 무지하다고 하였다. 독일 극우파들은 이런 문화는 퇴폐적(decadent)이며 사회적 및 도덕적으로 파괴적이라 주장하였다. 히틀러는 이 시대의 베를린을 악의 항구(a haven of vice)라 불렀다. 이 호황은

---

36) Angela J. Latham, Posing a Threat: Flappers, Chorus Girls, and Other Brazen Performers of the American 1920s (2000)

37) Rosenberg, Jennifer. Flappers in the Roaring Twenties. March 25, 2020. ThoughtCo. https://www.thoughtco.com/flappers-in-the-roaring-twenties-1779240

1929년 월가의 붕괴로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막을 내렸다.[38]

3. 중간단계

일차 성혁명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혁명인 이차성혁명 시기까지의 약 40여년간 동안 다양한 사상과 사회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이차 성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Freudo-marxism

1920년대 독일과 소련의 철학자들이 정신분석과 맑시즘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성혁명이 중단되고, 프로레타리아 공산혁명이 야만과 폭력으로 흐르자 서구의 맑시스트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다. 그들은 다른 방향에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함으로 맑시즘을 지속하려 하였다. 그런 새로운 맑시즘의 한 방편으로 "성의 해방"에 눈을 돌리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이다. 그는 프로이트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정신분석가였으며, 동시에 공산주의자(맑시스트)였다. 라이히에 의해 맑시즘과 "객관적" 과학(정신분석)이 합쳐졌다. 그는 맑스의 소외이론을 성적 소외(sexual alienation)로 대치하였다. 프로이트는 『문명과 그 불만』이라는 저술에서, 성욕을 억제(통제)함으로 인류문명이 발달하였지만, 대신 사람들은 불만(노이로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욕을 창조로 승화함으로 사회에 발달에 기여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라이히는 성욕을 발산함으로 불만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자고 주장하였다. 라이히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적 필요(욕구)의 묶음에 지나지 않으며(유물론이다), 성적 표현(오르가즘)은 자연스러우며(오르가즘 절대시로 이어져), 이를 사회가 억압하는 것은 인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그 억압하는 사회란 결국 가족, 학교, 교회, 그리고 국가이다. 그는 성적 억압은 인류역사 6,000년간 인간들을 병들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결론은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성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지상에 낙원(유토피아)을 창조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라이히는 프로이트의 리비도이론을 단순화하여, 건강해지고, 또한 혁명의 시민으로서 계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파트너를 바꾸든, (파트너가 "무엇"이든) 주 3회 사정(오르가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결혼" 또는 "의무적 가족"은 없어져야만 했다.

라이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활발하며 그러면서도 어떤 권위에도 저항하는 타고난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족적 연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교육을 하지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금욕의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위를 권장하였다. "(젊은이들의) 성적 억압은 복종적 시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청소

38) Paul N. Hehn. A Low Dishonest Decade: The Great Powers, Eastern Europe, and the Economic Origins of World War II, 1930-1941. Continuum. p. 12. 2005.

년 때 자유로이 성교를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낙태를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비정상적 성도 해방(인정)하자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였다. 그는 이런 급진적 주장 때문에 결국 정신분석학회 뿐 아니라 1933년 공산당에서도 쫓겨 났다. (그의 주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들리고 있다)

그는 나치스를 피해 북유럽 국가들을 전전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개업하면서 자신의 오르가즘 이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점차 여러 망상증적 증상을 보였고, 무리한 성적 실험을 하였다. 그는 "오르가즘을 만들어 주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 사기죄로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57년 사망하였다. 같이 사기행각을 하였던 그의 동료는 일 년 후 석방되었으나 곧 자살하였다. 그의 결말은 그의 사상이 결국 망상증으로 보이게끔 한다.

라이히의 주장은 전통적 성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비판을 받는다. 세상문제의 해결을 성기와 오르가즘에서 찾는 것 같은 모양새는 정신분석의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처럼 당시 그의 견해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미국의 토양에서 잘 자랐으며, 킨제이와 마스터스 및 존슨의 섹스 연구로 이어졌다.

한편 라이히는 계급투쟁을 "성 억압에 대한 투쟁"으로 바꾸었는데, 그의 메시지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으로 옷입혀져 소위 neo-marxism 또는 Freudo-Marxism으로 등장하였다. 그의 사후, 그가 1936년에 쓴 『Sexual Revolution』은 1960년대 좌파 학생혁명 때 성해방(프리섹스)를 주장하던 청년들의 반문화운동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과 더불어 지침서가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성을 결코 억압하지 않았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번성과 더불어 프리섹스도 번성하고 있다.

네오맑시즘

소련의 공산혁명에 실망한 맑시스트들은 방향을 바꾸어 다른 철학사상을 도입하여 맑시즘을 수정하거나 확대하여 신맑시즘(neo-Marxism)을 발전시켰다. 앞서 말한 Reich의 Freudo-Marxism도 신맑시즘 중의 하나이다. 이 사상은 1940년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을 거쳐 라깡 정신분석과 후기구조주의까지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Max Weber 사상과 Freud 정신분석을 맑시즘과 통합하여 비판이론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그 학자들 중에 Herbert Marcuse(1898~1979)는 맑시즘의 경제적 억압과 소외문제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본능적 성적 억압과 성적 소외로 재해석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성적 욕구(에로스)를 노동과 결합하고, 나아가 프로이트의 성욕이론을 성인과 전체 사회로 확대 적용하여, 성을 해방하고 해방된 리비도를 노동과 결합함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에 의한 사회적 히스테리 현상을 해결한다고 주장하며, 혁명적 미래를 제안하였다. 프로이트가 소아성욕이론으로 성도착증을 설명하였는데, 마르쿠제는 소아성욕이론을 성인에 확대하여 도착적 성을 용인하자고 하였고, 특히 가학

-피학증(sado-masochism)을 정상으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Wilhelm Reich의 성혁명 이론과 Marcuse의 비억압적 사회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 학생혁명이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성해방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Jacques Lacan(1901-1981)의 정신분석 이론은 Louis Althusser과 Slavoj Žižek같은 Freudo-Marxist에 영향을 주었다.

Marxist feminism - 이는 페미니즘의 한 분파로 페미니즘과 맑시즘이 통합된 이론으로 hegemonic capitalism과 투쟁한다. 이는 자본주의 아래서 어떻게 여성이 억압되고 착취되었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 맑시즘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보수가 없는 가사노동과 성관계 분석에 적용한다. Marxist feminism 활동가들은 정치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해방, 젠더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등을 계급문제, 인종문제, 제국주의문제 등과 나란히 같이 다루기를 주장한다.[39]

후기구조주의(또는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해체주의)

이 역시 맑시즘과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았다. 그 대표적 철학자는 Michel Foucault, Jacques Derrida 등이다.

Michel Foucault (1926-1984)는 젊어서부터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로 죽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젊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아버지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평생의 연구 주제는, 시대에 따라 만들어진 지식이 어떻게 진리가 되어 이를 근거로 사회가 섹슈얼리티를 "억압"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19세기부터 정신의학이라는 지식이 동성애자를 감금하고 치료하려 하였는데, 즉 정신의학이 억압하는 사회권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이후 현대인은 광범위한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체성은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동성애를 "개개인의 독특한 본성이다"라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포함한 쾌락과 에로티시즘, 사랑, 열정 등 모든 섹슈얼리티를 "존재의 미학"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로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에 의한 "소년애"(pederasty)에서 찾았다. 푸코는 동성애를 동성애자 개인들의 독특한 본성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주체로서 자유를 말하고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0] 푸코에 대한 비판으로 그의 글이 문학적 수사와 알 듯 모를 듯한 역사 자료로 치장된 나머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또한 그가 연구에 인용한 역사적 사료가 선택적이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뚜렷한 비판은 푸코는 자신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긍정적 해결방법을 제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

39) Luxton, Meg. "arxist Feminism and Anticapitalism: Reclaiming Our History, Reanimating Our Politics.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2016;94:137-160. doi:10.1080/19187033.2014.11674957

40) Wikipedia, Michel Foucault. https://en.wikipedia.org/wiki/Michel_Foucault

푸코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주는 반응(비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다. 푸코는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갱니적으로도 “전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41] 그의 이론은 설득력이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섹슈얼리티나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변명 내지 합리화처럼 보인다.

성적 문학

제임스 조이스의 『Ulysses』(1922), D H 로렌스의 『Lady Chatterley's Lover』(1928), Henry Miller의 『북회귀선』(Tropic of Cancer) (1934) 등이 출판되었으나, 즉시 금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출판되었다.

원시문화에 대한 인류문화학적 연구

1930년대 남태평양 섬 사모아에서 소위 서구인들이 상상하는 “원시적 낙원”에서의 성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병든 서구의 성문화에 대비되는 원시적이고 자유로운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적 자유에 대해 보고함으로, 서구의 억제적 성문화를 비판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서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이차성혁명에 연료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현지에서 다시 조사를 한 한 연구는 미드의 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초현실주의(surrealism)

이는 프로이트가 말하던 억압된 무의식에 대한 추구를 예술에 접목한 예술운동이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내용은 억압된 본능(성욕과 공격성)이나 잊혀진 기억들로, 꿈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꿈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들이 표방하는 예술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서구의 전통적 기독교적 억압에 대한 저항 특히 “성적 해방”을 주제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사드후작을 재발견하여 그를 칭송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대개 공산주의자였기도 하다.

이차세계대전과 전후 사화변화

이차세계대전 중 젊은 병사들이 해외로 파병되면서 매춘에 빠져들었다. 성병으로 인한 군사력 저하가 심각하였다. 점령지에서의 성폭행도 큰 사회적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늘 그랬듯이 전통적인 억압적 성문화를 뒤흔든다.

전후 서구, 특히 미국에 불어 닥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매카시선풍이라는 정치적 억압사태를 불러왔고, 젊은이들의 기성체제에 반발하는 저항을 불러왔다. 이어 월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일어났다. 이 모두는 기성 체제 질서에 저항하는 반문화운동(anti-culture movement)로 합류하였다. 성에 대한 문학소설, 성가이드북 등이 출판되면서 사람들의 성을 자극하였다. 영화에 외설적인 요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플레

41) Wilkin, P. Chomsky and Foucault on human nature and politics: an essential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1999. pp. 177-210.

이보이 같은 포르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피임약이 발명되어 임신 걱정 없는 프리섹스가 더욱 조장되었다.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킨제이 보고서

킨제이는 설문조사로 당시 미국인들의 성문화를 조사하여 1948년부터 소위 "킨제이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그는 당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막연히 모두들 도덕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킨제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실상을 폭로하였다. 즉 남자들의 다수가 불륜을 저질러고 있었고, 여자들도 불륜은 물론 성을 즐기고 있었다 하였다. (이는 당시로는 충격적 사실이었다) 남자들 37%가 평생 한번 이상 동성애를, 그리고 10%가 주로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역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전세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킨제이의 연구방법이 크게 잘못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혁명가들은 이 책을 칭송해마지 않는다.

1960년대 반문화운동

1960년대에 서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문화(counterculture) 운동이 일어났다. 크게 보아 1960년대 반문화운동에는, 신좌파 학생혁명운동과 월남전(1964-73) 반전운동, 히피운동, 반핵운동, 반인종차별운동, 환경운동, 언론자유, 오락을 위한 마약(마리화나 등), psychedelic (LSD) 문화, 성혁명, Rock and roll 음악의 유행 등이 포함된다. 당시 인권운동도 활발하였는데, 마틴 루터 킹이 이끄는 흑인인권운동, 노동자인권운동, 여성인권운동, 그리고 게이인권운동 등이다. 1960년대는 정치, 사회, 문화, 회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벌어졌다.

학생혁명 - 이는 1950년대 이래의 지배적인 문화, 특히 권위에 대한 순응적 문화,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 인종차별 같은 행태 등등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1960년대에 일으킨 반정부운동 내지 저항운동을 말한다. 그들은 미국내 신좌파의 조언을 받아 좌파적 경향을 띄었다. 거리시위, 캠퍼스점거, 연설 등이 전형적 시위방법이었다. 대표적인 대학이 UC Berkeley 였다. 시위가 과격했던 경우 주동자들은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미국인들과 대학생들이 좌파학생운동 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에서도 학생운동이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May 68이 유명하다. 이는 프랑스에서 1968년 5월부터 수주간 일어난 대학생들의 대학가 점거와 공장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동조파업이 결합된 시위운동이었다. 이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혁명"이었다고 평가된다.[42] 독일에서도 극렬한 학생운동이 있었고, 일부는 극좌파 테러리스토로 변하기도 하였다.

---

42) Erlanger, Steven. May 1968 - a watershed in French life. New York Times. 29 April 2008. https://www.nytimes.com/2008/04/29/world/europe/29iht-france.4.12440504.html?_r=1&pagewanted=all

어떤 이들은 이들 학생들의 반문화운동은 전통적 집단행동의 시대는 끝나고, 포스트모던 정치의 시작 또는 소위 new social movements가 지배하는 새 시대을 열었다고 평가한다.[43] 그러나 학생혁명은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위험한 무정부상태 였다.

그리하여 성혁명이 전개될 토양이 모두 마련되었다.

히피(hippie) 문화 – 19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반문화운동(counterculture of the 1960s) 중 하나이다. 미국의 1960년대 미국의 사회상황에 대해 청년층은 분노와 더불어 부정하는 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히피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도덕과 이성보다는, 자유로운 감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히피음악을 연주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쳤다. 히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긴 머리에 꽃을 꼽고,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다녔으며,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마리화나나 LSD같은 환각제 약물을 즐겨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대학가에서 시작되었으나, 1967년 미국 서해안의 대규모 음악페스티발 때 소위 “the Summer of Love” 현상으로 제대로 알려졌다. 특히 1969년에 있었던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1960년대 청년문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시의 페스티벌은 노숙, 나체, 술, 마리화나, 그리고 프리섹스의 카니발이었다. 이는 “집단 방탕“(mass libertinage)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4. 이차 성혁명

이차 성혁명은 1960년대 젊은이들의 프리섹스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반문화 운동과 더불어 나타났다. 본격적으로는 미국에서 1960년대 젊은이들에 의해 히피문화의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핵심은 프리섹스였다. 이 프리섹스의 혁명은 서구의 전통적 기독교의 성억제적 문화에 대한 결정적 도전이었다.

프리섹스는 이차성혁명 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거리였다. 실제적으로 1950년대부터 이미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와 그에 따른 성병과 청소년들의 혼전 성교와 임신 등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44] 더불어 여성의 성, 동성애, 성적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오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와 1970년대 초반부 동안 기독교에 기반한 전통문화에 대한 반문화운동(counter culture movement)과 히피문화에, 새로이 등장한 피임약의 영향 등등이 결합하여, 급격한 성해방 문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성해방 사상은 월남전

43) Staricco, Juan Ignacio. The French May and the Roots of Postmodern Politics. 2012. https://www.scribd.com/doc/112409042/The-French-May-and-the-Roots-of-Postmodern-Politics

44) Francis, Andrew. The Wages of Sin: How the Discovery of Penicillin Reshaped Modern Sexual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13;42(1): 5-13.

반대운동과 겸해 표현되었는데, 그 대표적 표어는 “Make Love Not War”였다.

1960년대 성혁명의 핵심은, 성혁명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상적 삶에서 “사랑의 힘”(power of love) 과 “섹스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sex)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은 말 그대로 ”프리섹스“였다. 프리섹스는 전통적 일부일처제의 이성애적 결혼(monogamous heterosexual marriage) 바깥에서의 성교를 용인해 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성적 자유(프리섹스)를 누리게 해주고, 죄의식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45] 성혁명은 몸과 마음을 탐구하여 자아를 1940-50년대의 일반적 도덕적 성 억압과 법적 제약에서 해방시키기를 추구하는 일종의 반문화(counterculture) 활동이었다.[46] 성혁명가들은 전형적인 성(젠더) 역할이나 이전에 성적으로 정상(sexual norm)으로 보았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점차 그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즉 모든 성적인 것은 삶의 정상적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섹스는 가족, 종교, 국가에 의해 억압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즐기고 기림(celebration)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47] 이 사상은 어떤 형태의 섹스도 건강한 것이며 쾌락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며, 따라서 합의되고 안전하다면, 추구하고 실험해 보기를 권장한다.[48] 즉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반면 합의되지 않은 성은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해를 끼치지 말라”는 프리섹스 시대의 성윤리이다. 다른 말로는 성행위의 어떤 형태든, 본인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도덕적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49] 성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해도 된다고 하며, 과거 성적 정상(sexual norm)으로 보았던 것에 대해 도전한다. 즉 일부일처제 이성애 결혼제도 밖에서의 성교를 용납하고, 더 성적 자유를 즐기고, 어떤 성형태도 도착이라는 느낌이 덜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50]

조만간 성해방에 게이(성소수자) 인권운동도 편승하였다. The GLBTQ Encyclopedi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51]: 1960년의 위대한 성혁명은, 이미 확립된 가부장제적 빅토리아시대의 기준과 프로이트주의(Freudism)[52]에 고통 받는 억압적 이성애

---

45) The Sexual Revolution. umwblogs.org http://historyofsexuality.umwblogs.org/mid-to-late-20th-century/the-sexual-revolution/

46) Slack, Kevin. Liberalism Radicalized: The Sexual Revolu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Rise of Identity Politics. The Heritage Foundation. 2013.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3/08/liberalism-radicalized-the-sexual-revolution-multiculturalism-and-the-rise-of-identity-politics

47) Isserman, Maurice. America Divid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138-140. ISBN 978-0-19-976506-5.

48) Gabosch, A. A Sex Positive Renaissance. December 8, 2014. https://allenagabosch.wordpress.com/2014/12/08/a-sex-positive-renaissance/

49) Ivanski C, Kohut T. Exploring definitions of sex positivity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2017;26(3):216-225. doi:10.3138/cjhs.

50) The Sexual Revolution. umwblogs.orghttp://historyofsexuality.umwblogs.org/mid-to-late-20th-century/the-sexual-revolution/

51) Retrieved 17 Nov. 2017. http://www.glbtq.com/social-sciences/sexual_revolution.html

적 문화를 “자유연애“(free love)의 사회로 변모시켰다.”

현재 프리섹스 사상은 산아제한, 피임, 누드허용, 혼전 성, 포르노, 불륜, 낙태 등의 합법화로 나타나고 있다. 자위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물론, 가학피학적 성(BDSM, Bondage, Discipline, Sadism and Masochism), 다자성애(polyamory), 등 무엇이든 모른 척한다. 이를 성-긍정 운동(Sex-positive movement)[53]이라고도 한다. 이 성혁명은 전쟁이나 투쟁이 없는 혁명이었다. 성혁명은 혁명이라 불러도 여러 특정한 사건들이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로 스며든 변화였다.

특히 여성은 남녀평등 뿐 아니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생식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제 성은 결혼과 부모되기라는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성은 개인의 표현의 영역, 즉 그 자체의 순수한 쾌락의 행동이 되었다. 여성주의 운동가 베티 프리던이 1963년에 쓴 책『The Feminine Mystique』는 “행복한 가정주부”라는 신화를 깨트리려는 의도로 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책이다.

그리고 성혁명가들은 혁명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 education)이 LGBT에 대한 교육을 추가한 것이다.[54]

1960년대에 일단 시작된 성혁명은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젊은이들의 시위와 특히 히피운동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로 맹렬히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성해방”의 메시지는 서구 산업사회의 모든 가정의 거실과 욕실로 침투하였다. 사람들은 물질적 번영 속에서, 절대적 자유와 자유로운 성적 만족이라는 현혹에 유혹되어 성을 전면 또는 중심에 놓고, 재미(fun)를 삶의 의미로 “상업화”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성화(sexualization)는, 비록 그것이 간헐적 방종이든 한조각의 포르노그라피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 결과로 이어지는 후유증인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가족 체제의 붕괴 등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liberinism의 필연적인 nemesis이다.

---

52) 그들은 가부장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프로이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프로이트가 말한, 노이로제의 원인으로서 억압(repression)과 그 치료로서 해방(release)의 논리를 받아드리는, 다소 혼돈된 태도를 보인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해방은 통찰(insight)을 통한 감정의 해방(release. catharsis)이지 성의 해방이 아니었다. 프로이트는 동성애에 대해 저작물 전체적으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의한 정신성발달 장애로 인한 노이로제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 동성애자 어머니가 프로이트에게 보낸, 치료를 부탁하는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동성애가 인격발달(정신성발달)에서의 변이(병)이지만 정상적 범위의 변이(normal variant)이라고 보며,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동성애자 중에서 사회에 공헌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이 치료를 맡는 것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 편지 하나를 근거로 프로이트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프로이트의 딸 Anna Freud는 그 편지가 잘못 받아들여졌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Anna Freud를 위시한 프로이트의 직계 제자 정신분석가들은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보고 정신분석으로 “전환” 치료하였다. 그런 전환치료는 이름을 달리하여(회복치료 등) 지금도 미국의 일부 정신분석가들이나 정신치료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신분석가들과 정신과의사들은 정신의학회의 권고에 따라 전환치료를 하지 않으며,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이론에 맞춘 새로운 변형된 정신분석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53) Gabosch, A. A Sex Positive Renaissance. Dember 8, 2014.

54) Abraham, Laurie. Teaching Good Sex. The New York Times. 2011-11-16. Retrieved 2019-05-26. https://www.nytimes.com/2011/11/20/magazine/teaching-good-sex.html

V. Libertinism과 종교

1. 유일신교와 범신론적 이교

전통적 유대-기독교와 전통이슬람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엄격한 절제적인 성윤리를 교훈하고 동성애를 금한다. 이는 아마도 일신론이란 교리와 관련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들 신자들 중 성혁명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소수파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퀴어 신학이나 개혁 무슬림이 그 예들이다.

역사적으로 일신 종교와 더불어, 유사종교들이 공존해 왔는데, 이들은 대개 다신론 내지 범신론 사상을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서구 기독교 입장에서 이교(이단 paganism), 신비주의 전통(Western mystery tradition), 오컬트, 비교(秘敎 esotericism 密敎, 秘傳) 등으로 불리운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지주의, 헤르메스교, 마니교, 등등이 있었다. 현대 비교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뉴에이지 이다.

이교들은 대개 성애 개방적이며, 심지어 성을 직접적으로 종교적 내지 성스러운 제의에 사용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종교들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교이며 다신론의 종교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성은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개방적 섹스는 남성에만 해당되었으며, 여자의 섹스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매춘이 성행하였고, 동성애도 용인되었다. 그러나 디오니수스축제(dionysia)와 박커스축제(bacchanalia)에서 보듯, 여성들에게도 때때로 프리섹스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로마 고위층들은 박커스축제가 이교적(pagan)이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는 엄격한 금욕을 주장하였지만, 교부 이레네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가장 큰 발렌티누스 영지주의의 내부에, 비밀스런 성적 문란이 있었다고 한다. 중세 기독교는 성에 대해 일부일처제 내에서만 성을 허용하고 그 밖의 성은 죄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 같은 비교들과 더불어, 마술(마법), 점성학, 연금술 등이 은밀히 성행하였다. (그 내부의 성적 문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세에 예외적으로 기독교전통의 축제이지만 디오니수스축제와 박카스축제와 비슷한 카니발(carnival)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후 근대에도 여러 occult들과 마술 등이 사회의 이면에서 번성하여 왔다. 그러나 비교들은 비밀리에 활동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바는 드물었다. 심지어 왕족, 귀족, 지식인 같은 에리트들도 이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근대에 이르면서 비교들이 점차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세기부터 영국에서부터 여러 유명한 비교들이 등장하였고, 강신술이 유행하였다. 비교에서는 기독교와는 달리, 여성도 영매(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있어, 19세기에는 형이상학적 종교인 신지학(theosophy)이 지식인들과 철학자, 작가들에 사이에 유행하였다.

20세기 현대사회에는 현대이교(Modern paganism) 또는 신이교(Neopaganism)라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현대 종교 부흥운동이 있었다. 여기에 다신교, 애니미즘, 범신론 등

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사 종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개 기독교 이전에 유럽에서 믿던 고대 이교들을 계승한 것으로, 대개 고대 영지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이교로서 20세기 직전에 The Hermetic Order of the Golden Dawn이,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대표적 이교로 Thelema와 Wicca 등이 등장하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비교들이 있다. 가장 전형적인 네오페이건 종교는 위카이다. 이들 비교들의 전통은 1970년대 뉴에이지(new age)로 나타나고 있다.

2. 섹스 매직(Sex Magick, Sex magic)

일부 현대 비교들에는 고대로부터 전래된 방탕주의(libertinism)가 비밀리에 결합되어 있다. 일부 현대 비교들도 성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종교의식에 성을 사용한다. 즉 종교적 및 영적 추구를 위해 마술 내지 제의에서 성적 행위를 사용한다. 흔히 성적 흥분이나 오르가즘을 이용하고, 더불어 원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사소하게는 특수한 복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거창한 의식까지 있다. 거대한 의식이란 고위의 남자 사제와 여사제가 마술에 사용할 마술적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성교를 하기 전에 신과 여신에 예배하고 기도한다. 대개 이는 상징적으로 시행되는 바, 남근을 상징하는 칼을 자궁을 상징하는 잔에 두는 것이다.[55] 이는 소위 성스러운 결혼(sacred marriage. hieros gamos라고도 한다)이 된다.[56] 성스러운 결혼은 연금술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남녀간의 완전한 연합으로 영성과 육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 논리는 성적 에너지는 강력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의식을 witches, healers, pagans, Wiccans 등이 실시는데, 보통 사람도 수련하여 매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행동들은 종교적 제의로 호도하고 있지만, 성욕을 해결하려는 성해방 사상을 감추고 있다.

어떤 현대 비교에서는 동방의 힌두교의 탄트라, 중국 도교에서의 방중술 같은 성적 수행에 대한 교훈을 일부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특별한 성적 마술을 행한다고 한다. 그 마술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마술이 아니라, 성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변신(transformation)하여 영적인 우주의 최고 존재와 교통함으로 행복과 치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섹스 매직은 성욕과 성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포착하여, 이를 대안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이단적” 종교 사상으로 본다. 비교는 기성 종교가 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을 해방하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이 인류역사를 통해 존속하는 힘을 얻는 것 같다. 이들은 대체로 정통적인 유대-기독교와 계몽적 이성주의와 성개방적인 사상들을 모두 “혼합“하고 있다. 그를듯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방법은 주로 신비주의의 제의

---

55) Farrar, Janet. Farrar, Stewart. The Witches' Way: Principles, Rituals and Beliefs of Modern Witchcraft. Phoenix Publishing. 1984.

https://en.wikipedia.org/wiki/Wicca#CITEREFFarrarFarrar1984

56) https://witchipedia.com/book-of-shadows/spells/sacred-marriage/

와 마술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아시아적 방식 즉 힌두교, 탄트라, 도교 등등을 차용하고 있다.

Thelema라는 비교에서의 섹스 매직은 독특하다. 신도를 성적으로 자극하여 거의 오르가즘 수준에 이르게 하면, 소위 eroto-comatous lucidity (에로틱한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에 이르는데, (최면상태 내지 트렌스상태 같다) 이 상태에서 우주의 지고의 존재와 교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Thelema의 창시자 Aleister Crowley(1875-1947)은 전형적인 libertine(방탕아)이었다. 그는 양성애자로서, 쾌락을 위해 여러 나라를 전전하였고, 마약을 하였고, 기타 관습과 규범을 무시하는 반문화적 행태를 보였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공공연한 비판을 받았으며, 추방되기도 했다.

Wicca라는 비교에서는 제의(ritual) 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서 BDSM를 시행한다. BDSM란 가학피학증(sadomasochism)의 한 형태로, 몸을 묶음(bondage), 처벌(discipline), 지배(dominance), 복종(submission) 등을 포함하는 도착행위이다. 기타 욕설, 나체 같은 다양한 에로틱 행위와 역할놀이(role playing)를 곁들인다. 이때 폭력이 행사되므로 요즘은 쌍방의 완전한 consent가 필요하다. 이 현상은 권력, 학대, 젠더의 이슈를 나타낸다고 하지만,[57] 우리가 보기에는 쾌감을 추구하는 성도착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섹스 매직과 비슷한 방법으로 1960년대 유행한 소위 Psychedelism은 마약(환각제)를 복용함으로 곧바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신적인 경험을 한다고 선전하였다.

현대 성학자들의 옹호 - 비교는 내부적으로 성적 문란이 있다는 말이 있으나, 현대 성학자들은 오컬트에, 기성종교들이 강조하지 않는, 여성 존중, 남녀 평등, 여성 리더쉽. 박애,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들 종교적 운동이 1920년대 일차 여성주의 운동(first wave feminism)이 성공하도록 도왔다고 본다.

3. Satanic Ritual Abuse

1969년 The Satanic Bible(사탄의 성서)이라는 책이 나왔고, 이 해 마침 유명한 Manson cult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어 1971년 The Exorcist라는 소설이 나오고 이어 영화화 되었다. 이후 Satanic Ritual이 미디어에 알려지고, 연달아 대량 살인 사건이 생기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컬트에 대한 공포가 높아졌다. 관련 사실을 보도하는 미디어도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하였다. 사탄적인 록 음악도 관심을 부채질 하였다. 1980년 사탄주의(Satanism)자들에게 납치되어 그들의 제의에서 학대를 받은 경험을 폭로하는 책이 나왔다. 그 내용 중에 부자나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사탄의 의식(Satanic rituals) 또는 검은 예배(black mass)를 통해 여자, 어린이 등을 납치하고,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포르노를 찍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심지어 제물로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80년 뉴욕의 한 탁아소애서 직원들이 소아를 성학대 한다 하여 종교인, 경찰, 법률가, child advocates, 소아케어 전문가, 등등 각계각층에 엄청난 분노를 야기하였고 온 사회가 들끓

57) Pearson, Jo. Inappropriate Sexuality? Sex Magic, S/M and Wicca (or 'Whipping Harry Potter's Arse!'), Theology & Sexuality 2005;11:(2):31-42, DOI: 10.1177/1355835805051876

었다. 사람들을 “도덕적 페닉”(moral panic, 또는 Satanic Panic)에 빠졌는데, 이를 Satanic ritual abuse hysteria하라 한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에서의 디오니수스 종교에서 제물인 어린아이들을 살과 피를 먹었다는 전설을 상기하게 한다. 드디어 반오컬트십자군(Anti-occult crusaders)이 등장하였다.

현재는 Satanic ritual abuse는 정의하기도 복잡하고 증거도 명백한 증거도 없어 논쟁만 무성하다. 이런 이야기가 음모론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Wicca는 아예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은 그런 BDSM 섹스매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모든 비교와 섹스매직 등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현대사회에 성적 문란,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 뉴에이지(new age)에서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현대의 대표적 오컬트는 뉴에이지(New Age)이다. New Age는 “사랑과 빛의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로, 개인적 변신(transformation)과 치유(healing)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뉴에이지는 1970년대 서구문화권(주로 영국)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범신론적 종교적 내지 영적 신념들과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New age “운동”이라고도 하고, 서구적 밀교(esotericism, occultism), 시대정신(zeitgeist), 또는 사회적 milieu이라고도 한다. 수행자 자신들은 스스로를 new age라고 부르지 않는다.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UFO religions, 반문화 운동, 인간 잠재력 운동 등이 New age에 영향을 미쳤다.

뉴에이지의 기원으로. 메스메리즘, 신지학(theosophy) 등 18세기 유럽의 영성, 밀교, occult 등등이 거론된다. “New Age”가 유행하는 이유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집단 역동(group dynamic)에 의한 의식 확장(expanded conscious) 상태가 관심을 끌기 때문이라 한다. 신성한 의식을 성취하게 해 줄 수 있고 기독교의 “도덕적 노예”됨이 없이 지상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New Age는 치유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는 new age science를 주장한다. 그래서 대안의학을 고안하고 제시한다. 기독교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New ager들은, 자칭 magician(마술사) 또는 witch(마녀)의 지도로, 특수한 제의적 매직(ritual magic)을 통해, 의지의 힘으로 물리적 세계를 변환시키고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신을 만난다고 주장한다.[58] 이러한 최근의 신이교 운동은 산업화된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최근에 등장한 대표적인 이교인 뉴에이지는 현대 성혁명적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의 젠더와 섹슈어리티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the Golden Age”가 지평선 위에 떠오름에 따라 인간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다. 다양한 성

58) Berger HA, Ezzy D, Teenage Witches. Rutgers University Press. 2007. p. 24. https://en.wikipedia.org/wiki/Magic_(supernatural)#cite_note-10

적 정체성과 젠더정체성에 있어, 평등(equality)과 개방성(openness)을 주장한다.[59]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긍정적으로 본다. 즉 섹스를 자기 표현, 영적 발달, 치유의 한 형태 등, 자기-발달과 더 큰 영적 각성(spiritual awareness)을 얻는 하나의 방법(manner)으로 본다.

섹스가 단순한 육체적 행동에서 벗어나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교와 힌두교의 탄트라(Tantra) 또는 이교 성적 마술(Pagan sexual magick) 등 고래의 종교들의 성적 수행(practice)를 차용한다. 예를 들어 Pagan sexual magick에서는 섹스를 self-transformation의 한 수단으로 보고 치유(healing)의 효과를 보려 한다. 종교적인 "성스러운 섹스 행위"(sacred sexual practices)를 통해 과거 성적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할 뿐 아니라, 육체적 성을 영적 차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뉴에이지가 선전하는 일종의 섹스 매직은, 인도 탄트라 수행을 뼈대로 요가 같은 성행위를 통해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감과 신정인 경험을 한다고 주장한다. 탄트라(tantra) 수행에서 섹스는 내적 영적 에너지 근원이며, 성행위는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 궁극적으로 "깨달음"(enlightenment)의 한 방식이 된다.

뉴에이지 운동이 섹스와 젠더에 관련하여 제시한 이론은 1960-70년대의 제2차 페미니즘(second wave feminism)에 영향을 주었다. 이때 여성주의자들은 암묵적 남녀 위계를 거부하고, 여성은 자기 몸과 자기(self)를 자기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업이나 가정 기타 모든 상황에서 남자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성직자 임명과 남성의 언어가 제거된 기도와 예배를 주장하였다. 뉴에이지는 당연히 LGBT, queer 등등, 모든 종류의 정체성을 자기(self)를 찾고 개발하는 수단으로 본다.

뉴에이지는 과거 전통 종교들이 섹스를 부정적으로 본 것을 고치고, 대안적인 긍정적인 성을 제시하고 여성의 지위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신교적 기독교가 섹스를 더러운 죄로 본 것과 여성을 비하한 것과 가부정적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과 기독교의 진정한 성적 개념을 곡해하고 악선전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섹스를 자연적이며 영적(거룩하고)으로 보고, 영적 및 정신적 성장을 위한 통로이며, 성 및 젠더 정체성이 다양하며 모두 가치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남녀 양성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21세기에 들어서 new age 현상은 식어들고 있다.

VI. Libertinism의 의학적 합병증

의학은, 난봉꾼은 결국 병들어 일찍 죽다는 단순한 진리를 잘 입증하고 있다. 방탕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의학적 근거는 방탕이 수많은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에 있다.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할 때도 진리인데, 이는 역사적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

59) Gender and Sexuality. Religion Library. Patheos
https://www.patheos.com/library/new-age/ethics-morality-community/gender-and-sexuality

1. 성병

고대

고대나 중세 초기에는 성교와 관련하여 성기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 의사들의 관찰과 치료기록들을 남기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당시 어떤 성병이 있었는지 현대 연구자들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매독

16세기 경 유럽사회에 매독이 등장하여 창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매독의 증상은 매우 악성으로 중세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끔찍하였다. 통증도 심할 뿐 아니라, 성기에서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는 농포(고름주머니)와 궤양(살이 패임) 등 피부증상이 보기에 험악하였고, 사망률도 높았다. 요행히 장기간 살아남아도 결국 척수매독(tabes dorsalis)에 의한 불구상태와 뇌매독에 의한 전신마비(general paresis)와 정신병(매독에 의한 치매)도 비참하였다. (근대 서구에 정신병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뇌매독에 의한 정신병이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공포처럼, 르네상스시대에 흑사병, 나병과 더불어 매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매독을 “성기흑사병“이라고도 불렀다.

매독의 유래에 대하여 연구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1493년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데려왔던 인디안 토착인들이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를 신세계로부터 옮겨와, 바르셀로나에서 매독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60]

유럽에 매독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1495년 한 의사가 나폴리를 침공한 프랑스군 병사에서 성교로 전염되는 매독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후 전쟁이 매독의 주요 전파 요인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용병들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매춘도하고 강간도 하면서 매독에 전염되어 퍼트렸고 귀향하여 고향에서도 매독을 퍼트렸다고 한다. 15-16세기 봉건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크게 사회변동이 왔고, 불안정해진 젊은이들은 전통적 가족, 교회, 국가의 규제를 피해, 파병, 무역선, 노예무역 등으로 전 대륙으로 여행을 하면서, 매독을 전파시켰다. 이는 이 시대의 성적 문란(방탕)을 상징한다. 여하튼 16세기 유럽에 매독은 급속히 퍼져 나갔다.

1530년 베로나의 의사이자 시인었던 프라카스토로가 처음으로 “매독”(syphili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무지함이 매독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가져다주었다. 여성의 성기가 내부적이므로 거기에 여자가 악의적으로 병의 원인되는 물질을 숨기고 가능한 많은 남자들에게 전염시킨다고도 하였다. 심지어 월경중 성교가 매독을 생기게 한다고도 보았다.

---

60) 그러나 콜럼버스 이전 이미 유럽의 동물에 잠복하고 있던 어떤 병이 변이를 거쳐 사람에게 매독으로 나타났다는 이론, 기원전 3000년부터 남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위로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가설, 중서부 아프리카로부터 남부 유럽의 문명사회로 옮겨와서 병성이 악화되어 현재의 매독이 되었다는 가설 등등이 있다. 또한 이미 1492년 스페인을 기독교국가로 재탈환한 페르디난도와 이사벨이 유태인을 박해하여, 유태인들이 파난길을 떠났는데, 그들 일부가 로마의 성문 밖에 도달하여 머물 때, 그들 중에서 매독이 대 유행을 하였다고도 한다.

초기에는 매독을 사혈과 구토로 치료하였으나, 효과도 별로 없었고, 부작용이 많았다. 16세기 프랑스의 한 교사가 이 병에 대해 수은치료법을 고안하였는데, 수은은 오래전부터 아라비아에서 피부병, 나병, 등 여러 질병에 사용되고 있었다, 17세기 훈증법이 매독치료로 유행하였는데, 당시 매독에 대한 경고로서 “단 한 번의 쾌락, 천개의 고통”, “비너스와의 하룻밤은 머큐리(수은)와의 평생“ 같은 말들이 유행하였다. 당시 매독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콘돔이 발명되었다.

세상에는 우연한 것은 없고 모두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던 중세인들은 매독을 매춘, 방탕, 그리고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임재”, “신령한 힘의 개입”, 또는 “죄의 값”이라고도 하였다. 여자의 죄라고도 탓하기도 하였다. 사회는 매춘을 매독의 원인으로 보고 매음굴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창녀는 나환자처럼 취급되었다. 그만큼 성병에 대한 공포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욕을 자제할 줄 모른다. 그런 점에서는 중세의 성적 일탈은 현대 사회의 성적 일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40년대 페니실린이 발명되어 매독이나 기타 성병은 잘 치료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안심하게 된 방탕자들은 더욱 섹스에 몰두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에이즈

1980년대 동성애자들에게서 “무서운” 에이즈가 발견되었다. 그 바람에 동성애도 주춤하였고, 전반적인 성문란도 주춤하였다. 절망에 빠진 일부 동성애자나 에이즈환자들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채 성행위를 함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에이즈는 환자는 아직 소수이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회에 매우 부담이 되는 질병이다.

1980년대 에이즈가 등장하자 모두 성행위를 삼가는 바람에 매독과 기타 성병도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에 모두들 안심하고 섹스에 몰두하면서 의외로 매독, 임질, 곤지름 같은 다른 일반 성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더구나 페니실린에 저항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균 종류가 나타나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곤지름은 HPV라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성기에 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성기의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HPV에 대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칠 계획이 있다.

성병 이외 성행위로 감염되는 병들이 새삼 문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간염, 이질과 같은 소화기계장애가 그것이다. 또한 성감을 돋구기 위해 사용하는 마약이나 각성제를 주사하는 주사기에 의해 혈액을 통한 매독이나 에이즈, 기타 감염병들이 전염된다.

2. 히스테리와 노이로제

19세기 서구에서는 여자의 히스테리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를 간질현상의 하나로 보아 hystero-epilepsy(히스테리성 간질)로 불렀다. 당시 의사들은 이를 뇌병의 하나로 보고 최면술로 치료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최면술

로 치료하다가 이 병이 뇌가 아니라 심리적 원인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고안한 정신분석으로 치료해 내었다. 그는 이 성공을 이론화하여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여자의 히스테리는 억압된 성욕 때문으로 보았다.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위선, 즉 여성은 깨끗하고 우아하게 가정을 지키고 섹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일으킨 여자들을 정신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가정부인들은 성을 억제하였지만, 남편들은 자유롭게 집 바깥에서 성을 즐기는 것을 보고, 또한 남편들의 성 상대인 창녀들은 연애나 섹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고, 불만에 쌓인 결과, 결국 소위 히스테리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히스테리는 오래된 여성의 병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여성의 자궁이 요동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성적인 것을 원인으로 본 것은 현대와 유사하다) 즉 심리적 원인이 뇌병을 야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병은 심인성 신경병(psycho-neurosis 줄여서 노이로제)이라고 불렀다. 이후 그는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해리증 등도 같은 심인성 병으로 보고 치료하였고, 또 성공하였다. 이로서 그는 소위 노이로제라는 병을 알렸다. 그의 이론은 유명해 졌다. 이 이론에 따라 모든 노이로제는 성욕을 억압한데서 생겨난다는 관점이 생겨났고, 사회에 큰 인상을 주었다. 사람들은 성욕을 참으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직간접적으로 20세기에 성을 해방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당시 의도한 바는 “성해방”은 아니었다. 그의 치료는 성을 해방하라가 아니었다. (문제는 남자들은 프리섹스를 즐기는데 반해 여자는 억압한다는데 있다) 그는 무의식 속의 “본능의 힘“을 통찰하고 생산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즉 사회적으로 승화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본능의 힘을 발견함으로 그 본능을 해방하라는 사상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성혁명 내지 성해방 사상은 결국 그의 제자 Wilhelm Reich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는 급진적 성해방 사상으로 정신분석학회에서 추방되었다)

정신분석에 의하면 동성애, 트렌스젠더, 심지어 약물남용 등은 모두 노이로제 현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방탕아 심리, 예를 들면 돈환증후군도, 정신분석적으로 즉 심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의학적 방법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libertinism, 성혁명 등도 정신분석적(심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결과적으로, 남자들의 방탕이 여자들에게 병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도 방탕하라는 셈이 되었다. 여자가 방탕하게 되면, 남자가 노이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성해방으로 노이로제라는 사회적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된 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해방이 시작된지 50여년이 흘러도 현대사회에 노이로제 (불안, 우울, 히스테리현상(전환장애), 자살, 약물남용) 현상들은 여전히 증가 중에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해방론자들은 성억압이 여전하다고 보고 더 “급진적” 해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점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히스테리와 성화(sexualization) - 히스테리 현상은 성격적으로도 나타난다. 그 증상은 화려하고, 극적이다.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 외모, 정동 등의 표현이 과도

하다. 그러나 감정의 깊이가 없고 대인관계 역시 표면적이고 성실하지 못하다. 이들은 사고와 감정을 과장하고, 모든 것을 실제보다 중요한 것처럼 말한다. 감정폭발이나 눈물을 자주 보인다. 한편 피암시성이 높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환자들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적절한 찬사를 받지 못한다며 주변을 비난한다.

대인관계에서 성화(sexualization)하는 경향이 있다. 즉 비성적인 관계를 성적으로 에로틱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흔히 성적 유혹 행동으로 보이나, 정작 진지하지는 않고, 피하거나 장난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적으로 기능장애를 보일 수 있다. 대인관계는 피상적이고, 허영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변덕스럽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현실 검증력이 손상될 수 있다. 재확인을 항상 원한다.

이는 성화가 심한 현대 사회와 비슷하다. 즉 도시가 화려하고, 사람들의 옷차림에 노출이 심하고, 광고, 예술, 연예, 밤의 문화 등이 섹스로 넘쳐나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을 성화(sexualize) 하고 있다. 사람들은 쾌활함과 즐거움을 과장하여 연출하는 것 같다. 마치 모두가 섹스 어필을 자랑하는 화려한 파티 같다. 그러나 그 내면은 진지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예민하고 불안하다. 전체 사회문화가 히스테리컬 하다. 즉 성적이다.

3. 성 중독 현상

Libertinism은 성적 쾌락에 대한 중독(addiction) 현상처럼 보인다.[61] 왜냐하면 이는 쾌락에 관련되고 쾌락은 흔히 중독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과 술이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중독에 대한 이론은, 쾌락은 한 번 맛보면 또 맛보고 싶어지고, 맛볼수록 더 자주 맛보고 싶어지고, 더 강하게 맛보고 싶어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성해방이 되면 될수록 더 자유롭고 더 강한 성적 자극을 원하게 된다. 하나의 병으로서의 성 중독(sex addiction)의 개념은 최근 30년 사이에 생긴 개념이다. 성 중독은 중독 장애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성장애에 포함되고 있다.[62] 이는 또한 행위중독의 하나이다.[63] 한편 모든 중독은 뇌에 보상회로(reward circuit)[64]라는

---

61) 중독이란 심리적 의존, 신체적 의존, 금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어떤 물질(술, 담배, 커피, 안정제, 마약 등)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과 신체적 의존 상태가 되고, 늘 그 물질의 효과에 취해 있고, 중단하면 무서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끊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62) 민성길(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2013.

63) 행위중독이란 물질 뿐 아니라 어떤 인간 "행위"에도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행위중독 현상에는 성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등이 포함된다. 운동중독, 일중독, 쇼핑중독, 강박적 자위 등도 행위중독에 해당된다. 병명은 아니지만, TV 중독, 핸드폰 중독 같은 말도 유행하고 있다.

64) 인간이나 동물의 뇌에 쾌락과 중독을 담당하는 회로가 있다. 이를 보상회로(reward circuit)라고 한다.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면 그 행동에 증가하는데, 쾌락이 그 보상이 된다. 따라서 모든 쾌락(쾌감, 즐거움, 행복감 등등)을 주는 행동은 중독성이 있다. 이 회로에 변연계의 사상하부, nucleus accumbens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쾌락주에 해당된다. 중독현상이 죽음으로 이끈다는 점은 실험적으로 잘 증명되고 있다. 즉 실험동물 쥐 뇌의 쾌락중추에 전극을 심고 이를 자극하는 레바를 쥐

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물학적(기계적)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독은 가차 없이 몸과 행동, 그리고 사회마저 지배한다.

성 중독 환자는 강박적으로 성적 경험을 추구하면서도 이어지는 성적 충동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려 한다. 그 때문에 행동 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중독자는 결국 쇠잔해지고,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간경화가 생기고 감염병에 걸리는 등등 일찍 죽는 수가 많다.

성 중독의 증상은 하루 24시간 성욕이 증가되어 있고, 머리 속에는 섹스 생각만 가득하고, 사회적·직업적 취미활동을 주로 성적 행동으로 나타낸다.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성행위를 하려한다. 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을 보여 마음이 불안, 초조해 지고 행동이 안절부절해 한다. 일단 섹스를 하면 금단증상이 해소된다. 그러나 조만간 다시 섹스를 하고 싶어진다. 성행위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여 나간다. 스트레스나 분노, 우울, 불안이나 불쾌감을 느낄 때 성적 충동을 행동화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환자의 모습을 보면 성욕 때문에 성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풀기 위해 성에 몰두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때마다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지만, 그런 감정은 성행동의 반복을 방지할 만큼의 강하지 않다.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은 습관적인 자위, 잦은 불륜, 변태적이거나 잔인한 성행위, 지나치게 긴 성관계, 관음증·노출증, 매춘 여성들과의 위험한 성관계 등을 즐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만족감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파트너와의 아무런 감정적인 교류 없이, 단순히 기계적인 섹스만 하기 때문이다. 섹스 중독자는 섹스를 하면서도 오히려 우울증, 절망감, 부끄러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중독' 됐기 때문에 성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강박적이라 한다.

성행위가 반복되면 왠만한 자극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점차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 자기파괴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성적 행동으로 이동한다. 결국 이런 과도한 성적 행동은 환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법적, 직업적 및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파괴한다. 즉 섹스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된다.

성 중독 환자에서 관음증, 노출증, 페티시즘, 등 성도착증적인 행위가 자주 발견된다. 그 밖에 조현병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도 동반된다. 특히 물질관련장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80%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술이나 마약으로도 건강을 해친다. 이 역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성 중독은 중독자 개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삶과 인간관계마저 모두 잃게 한다. 이러한 자기파괴적인 개인적 현상은, 사회적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즉 성중독자가 그 사회에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자기 파괴적이 되어간다. 즉 현

자신에게 준다. 쥐는 우연히 레바를 누르면 쾌락 중추에 신호가 가서 즉각 쾌감이 온다. 이를 알게 된 쥐는 또 레바를 누른다. 그때마다 쾌감이 온다. 점점 레바를 누르는 간격이 좁아진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학습되었다고 한다) 레바를 못 누르게 하면 금단증상을 보인다. (이는 중독회로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 쥐는 레바를 누르느라고 침식을 잃는다. 쥐는 레바만 누르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만다. 이는 술꾼이 술을 계속 마시다가 중독에 빠지고 술마시기를 계속하다가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식을 챙겨 먹지 않고, 문란하고 비위생적인 생활로 각종 병에 결려 수명이 단축된다.

재 사회의 성적 문란에 뒤따르는 퇴폐, 허무감, 증가하는 노이로제 현상, 음란전화나 성희롱,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증가 등을 설명한다.

성 중독을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든다. HIV-에이즈는 물론 각종 성병도 수명을 단축시킨다. 방탕은 필히 폭력과 관련될 경우가 많다. 섹스와 공격성이 결합된 것이 사도마조히즘이다. 즉 성중독자는 성적 학대(폭력)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치정사건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며, 성과 관련된 폭력조직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성 중독 현상들을 열거해 보면,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혁명적 문화 내지 프리섹스 문화에서 보는 병적현상들 처럼 보인다.

4. 출산율 저하

필자는 인구감소, 즉 출산율 감소는 방탕(libertinage)의 만연과 관련 있다고 본다. 성혁명과 프리섹스가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리섹스와 출산율 감소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결과의 관계라는 입증은 아직 없다. 그러나 두 현상은 나란히 나타나고 있어 상관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그것이 역전되었다. 노인은 증가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기수가 적다. 사회 전체가 노화하고 있다. 즉 데카당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적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아기를 가지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하나만 낳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라 한다. 그 원인이 경제적 이유만일까? 현대 사회는 풍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에 출산율 감소는 프리섹스의 만연의 후유증(합병증)이라고 본다. 즉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을 가지기보다, 케주얼 섹스(일회성 섹스)의 반복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또한 중요한 이유는, 프리섹스 문화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섹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모험적으로 섹스를 시도하는 수가 자주 생기는데, 그런 경우 청소년들은 아직 몸과 마음이 미숙하여 섹스가 단순하고 기계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성숙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 영화나 섹스가이드북에서 묘사하는 "과장되게 표현된" 섹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실패감을 가지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가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종의 트라우마이다.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결혼에서의 성생활에 기대하거나 흥미를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기피하려 할 수 있다. 또는 그 성적 트라우마를 극복(master)하기 위해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섹스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어린 나이에 겪은 폭력적 성에 의한 트라우마, 임신에 대한 두려움의 트라우마 등도 정상적 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인권, 페미니즘, 양성 평등, 정의 등이 강조면서, 성적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성적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나 제안이 공격성을 띄거나 공격적으로 또는 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하는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섹스에 대한 과장된 정보가 자신의 섹스에 대해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즉 실패할지 모른다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이 아예 섹스에 접근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젊은이들이 능동적으로 이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수동적 섹스를 선호하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포르노, 가상현실 같은 방법으로 또는 지위로 쾌감을 얻는 방법이 선호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사교나 비교가 제공하는 섹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 빠지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성욕은 사춘기 때 왕성하나 실제 결혼은 늦어지므로, 장기간 포르노나 자위로 성욕을 발산할 수 있는데, 과도한 자위는 이후 성능력 뿐 아니라 생식력을 감퇴시킨다. 결혼해도 출산이 적은 이유로 일반적인 남자들의 성욕과 생식력의 감퇴가 원인일 수 있다.

개인적인 이유이외 환경적 요인도 있다. 현대사회의 안락한 생활과 교통수단, 그리고 자연한경 파괴(매연 등) 등이 인간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감퇴시키고 있다. 환경호르몬이 인간의 성호르몬 생태를 파괴하여 성욕과 생식력을 감소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전세계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정자 수와 정자의 활동성이 최근 급감하고 있다. 거기다가 나이 들어 결혼함으로 임신을 하기도 어렵고, 임신하더라도 유지하기도 어렵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할과 권력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여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애기를 적게 낳거나 안 낳으려 한다. 젊은 부부는 아기가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가 많다. 이는 가족보다 개인의 섹스를 중시하는 것으로, 프리섹스 현상이며, 그래서 성혁명이 전통적 가족체제를 파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란 젊은이들은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혼생활에 부담을 가진다.

이 모든 생식력 감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현상들은 프리섹스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성혁명과 프리섹스 문화에서는 가정을 가지고 아이 낳아 키운다는 생각은 우선적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 기타 의학적 합병증

물질남용 – 프리섹스 내지 방탕에 흔히 동반하는 의학적 현상에 술과 마약(각성제 포함)이 있다. 술과 진정제들은 정신을 이완시킨다. 각성제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듦으로 성적 쾌락을 증강시킨다. 아편과 헤로인 같은 마약에 의한 쾌락은 섹스보다 더 강렬하다는 견해가 있다. 술이나 물질 남용이 반복되면 중독 행독 이외에도 심각한 신체건강문제가 발생한다.

조기 성경험의 위험 - 사회에 성화(sexualization)와 성문란이 심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모험적으로 성을 경험하려한다. 비록 성교육을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은 성적 접근에 대해 “no”하라고 일러주거나 또는 미리 피임하라고 일러주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뇌가 미숙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뇌가 완전히 성숙하려면, 사춘기가 끝나는 18세가 아니라, 2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론이 나와 있다)

어린 나이에 성적 활동을 시작한 소녀들이 나이 들어 불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Johnson 등의 2003년 보고서[65]에 의하면 13세 이후 성적 경험을 시작한 소녀들과 20대 초반에 성경험을 시작한 여성들이 결혼한 후 생활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소녀들)의 경우 이후 평균 13명 이상의 혼외 섹스파트너를 두었지만, 후자(20대)의 경우 평균 2.7명의 혼외 섹스 파트너를 두었다. 즉 어려서 성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후 성생활이 문란하였다. 결혼하지 않을 경우 미혼모가 될 확률은 7배였다. 또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성병감염이 약 2배, 원치 않는 임신이 4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3배, 결혼 불안정이 2배, 가난은 2.5배, 낙태/유산경험이 3배, 우울증 2배로 많았다. 행복도는 37% vs 56% 였다. 즉 전자는 후자에 비해 이후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불우하였다. 즉 그리고 그런 불행은 대를 이어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다.

프리섹스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소아나 청소년은 또레나 성인에 의해 성폭력을 당할 우려도 높다. 많아지고 있는 성폭력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고 있다. 혼전 임신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는 낙태(임신중절)이다. 낙태는 그 자체가 건강에 위험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어 긴 후유증을 남긴다.

이 모두 궁극적으로 자유연애, 프리섹스, 즉 성혁명의 덕분이다.

무기력 현상 - 얼마 전까지 문학을 통해 상상으로만 표현되던 불륜, 혼전 성교, 캐주얼 섹스, 새디즘, 마조히즘, 동성애, 개방결혼 등등이 20세기를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경망하고 불합리한 것 등을 정상으로 보는 지경에 이르면 그 문화는 데카당스이다. 데카당스 사회는 그 자신의 성공의 결과이다. 자유분방이 지속되면 또는 libertinism이 활발하다보면, 19세기 서구처럼 결국 탈진(데카당스)이 오기 때문이다. 자식(생산과 창조) 없이 늙어가는(낡아가는) 사회는 데카당스에 가깝다. 데카당스(쇠퇴, 허무, 노화)를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편안한 병”이다. 편안하다는 말은 사회가 안전해 보이지만, 창조성과 활기와 모험을 잃고 있다는 말이다. 현대 사회는 내부적으로 이미 와해되고 있는 퇴화로 돌입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인구감소가 그 증거이다. 또한 생산성이 줄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의 느려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창조

---

65) Johnson K, Martin S, Noyesand L, Rector R. Harmful Effects of Early Sexual Activity and Multiple Sexual Partners Among Women: A Book of Charts. Herritage Foundation. June 26, 2003
https://www.heritage.org/education/report/harmful-effects-early-sexual-activity-and-multiple-sexual-partners-among-women

성이 줄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금을 쏟아 부어 연구는 많이 하나 생산적 결과물은 드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젊은이들은 더 이상 기회를 찾아 "서부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의 노화는 기존의 독점기업만 더 크게 만들고, 스타트업은 줄어들게 만들며, 단지 자기 취업(자영업)만 증가하도록 만든다.

착한 행동을 하던 젊은이들은 더 우울해 지고 있다. 그들은 이제 술도 덜 마시고, 항우울제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에 대한 약물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도 증가일로에 있다. 약물 남용도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조금씩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장래에 대한 예측 - 의학은 병의 경과를 연구한다. 즉 어떤 질병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의학적으로 libertinism 즉 쾌락 추구는 성 중독과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정신의학 이론에 따르면, 성 중독 현상은, 내버려두면 미래에 더 심하게 그리고 더 널리 나타날 것이라 예측된다. 사람은 일단 어떤 쾌락에 중독이 되면 더 강하고 색다른 자극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프리섹스, 불륜, 동성애 등도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외 아직은 숨겨져 알려져 있지 않던 많은 성적으로 문란한, 아직은 타부시되는 행동들이 표면화 할 것이다. 사도마조히즘은 물론 개방결혼, 집단섹스, 소아성애, 수간, 근친간, 다자연애(Polyamory), 가상현실 포르노, 로봇 성인형 등도 노골화되고 정상화하려 할 것이다. 다자연애란 도덕적 통제 없이, 어떤 형태이든 대상이 누구든 쾌락(오르가즘과 사정)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방탕 행동이다. 조만간 관음증, 페티시즘, 노출증, 부비기, 이성복장도착증, vampirism(흡혈) 같은 성도착도 정상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앞서가는 지식인들과 미디어들이 이를 부추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데카당스가 심화된 것이고, 마지막이 더 가까워 진 것이다.

자주 강한 성적 자극을 경험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심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여 더 빨리탈진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신의 능력은 더욱 퇴화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인들은 더 강한 성적 쾌락을 얻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탈진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힘들이지 않고 강력한 화학물질에 의한 섹스(쾌락) 또는 기계적 방법(섹스 토이, 로봇 섹스, 가상현실 섹스, 뇌자극술)을 개발할 것이고, 그런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 나갈 것이다. 데카당스는 화려하고 정교하고 매끄러운 덮개의 윤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쇠퇴를 보이지 않게 은폐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교회나 종교도 필요 없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웰빙, 섹스, 그리고 엉뚱하게 angelic creatures에 열광한다. (인간을 돕는 수호신, 천사, 요정,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존재) 또는 뉴에이지, 정치적 올바름, 범신론적 환경보호주의(pantheistic environmentalism), 반인종주의(anti-racism) 등등을 종교나 신앙처럼 추구한다. 이들은 마치 국가종교 같기도 하

고, 이교 같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종교나 이교들은, 과거 역사에서 보듯, 세상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데카당스를 예상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른다. 우편물은 꼬박 꼬박 잘 오고, 즐길 거리는 풍부하고, 범죄율은 과거보다 낮아져 있다.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며, 맛있는 음식이 순식간에 배달된다.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불임이지만 아직은 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 살기는 편안하고 또한 재미나는 퇴폐의 윤기가 흐르지만, 그 미래세계는 혁명으로 세운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로 보이지만, 실제는 창조가 더 이상 없는 불임의 유토피아(sterile paradise)이다. 사람들은 와해의 와중에 있어도 자기가 거기 있는 줄 분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적이어서, 현재의 삶을 괜찮은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VII. 요약과 맺는 말

1. 역사의 반복

Libertinism은 방탕아(libertine. 난봉꾼, 호색가)의 사고방식을 하나의 철학으로 이론화하고 장식한 사상이다. 이는 인간에서 Sex는 본성이므로 그대로 표현될 수 있어야 자연스럽고, 그래서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성적 쾌락은 중독적이어서 사람의 의지로 통제하기 쉽지 않고, 점차 더 강하게 추구하게 만들기 쉽다. 쾌락의 유혹에 약한 인간은 지금까지 “지적으로” 여러 핑계를 만들면서 어떻게든 성을 억압에서 해방하는 쪽으로 애를 써왔다.

Libertinism의 역사를 볼 때, 한편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수스 사상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기독교의 역사적 전개가 있어, 서로 갈등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방탕아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다. 고대의 디오니수스 종교는 결국 libertinism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libertinism은 중세 동안 기독교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러나 숨겨진 이단(esoterism)의 세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중세말기 15세기 경 libertinism은 드디어 기독교의 통제를 뚫고 인본주의 르네상스로 나타났다.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libertinism(방탕주의)이라는 이름은 17세기 계몽시대 서구 왕정복고 사회에 등장하였다. 이후 libertinism은 왕, 귀족, 부자, 지식인(사상가, 작가 예술가 둥) 같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서 성행하였다. 즉 권력과 지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방탕을 즐길 수 있었다. 대표적 인물로 사드 후작이 18세기에 삶에서 방탕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성은 억제되었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엘리트들을 부러워하거나 증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규범에 적응하며 살았다. 사회가 근대로 발달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지식들이 점차 퍼지고 보통 사람들

의 지식수준도 높아갔다. 모두 엘리트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19세기가 지나가면서 부르주아 층이 증가하고 이들이 각성하게 되었고, 방탕의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었다. 19세기 말 방탕의 레파토리가 확장되었다. 우선 문학에서 상상을 통해 불륜, 새디즘, 마조히즘, 동성애, 관음증 같은 도착증 등등이 추구되었다. (사고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타부시되는 주제들을 과감하게 토론하는 것이 데카당 문학의 특징이다. 오스카 와일더가 대표적이다.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libertinism은 프로이트-맑시즘에 근거하여 성혁명으로 이어졌다. 전 세기 동안 상상으로만 그리던 퇴폐적 성문화가 대중적으로 실현되어 갔다. 일차성혁명 때 플래퍼 여성들이 나타나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데 앞장섰다. 창녀만 찾던 남자들은 당연히 이를 환영하였다. 소위 캬바레문화, 재즈시대가 발달하였다. 페미니즘의 발달로 여성의 정치적 힘도 조금씩 얻어갔다.

한편 소련에서 있었던 급진적 성혁명이 있었지만 조만간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성혁명가들이 깊이 숙고할 부분이라고 본다. 소련의 혁명가들은 성 해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챘던 것이다.

1960년대 본격적인 이차성혁명이 일어났다. 드디어 성욕이 가장 강한 청년들, 대학생들이 앞장섰다. Libertinism이 보편화되었다. 방탕아의 후손으로 퇴폐자(decadents), 성혁명가들, 히피들, 일회성 섹스 추구자들 등 libertine들이 대거 나타났다.[66] 그들은 도덕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이제 모든 개인이 모든 대상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섹스를 즐기는 길이 열렸다. 결혼 밖, 비일부일처제적 섹스가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서구의 성의 역사는 기독교와 인본주의 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방탕현상은 섹스는 자연의 생물학적 힘으로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 이후 “성 해방의 죄”를 짓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 왔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이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노력, 죽음을 향하여 가는 강박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이 힘에 대해 반대해 왔다. 기독교가 처음 서구에 들어 온 이래, 초대교회, 중세 카톨릭교회, 16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17세기의 청교도와 경건주의 운동, 19세기 이래 복음주의 기독교 등, 기독교가 갱신을 거듭하며 성적 절제를 설교하며 “방탕”의 세상에 개입하려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방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기독교가 성을 통제하고 있을 때, 이교가 사회의 어두운 일각에서 범신론적 이교들이 디오니수스적 libertinism을 계승하고 유지해 주고 있었다. 이제 그 역할을 뉴에이지

66) Hawthorne, Melanie. The Sexual Psychology of Decadence. in Jane Desmarais et al (ed) Deca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9. pp 200-215.
DOI: https://doi.org/10.1017/9781108550826.013

가 맡아 있다.

기독교는 매번 “방탕”을 사회에서 몰아내려 하였으나, 매번 더 강한 악마를 불러들였던 것 같다.

2. 의학의 위치

한편 의학은 성연구, 정신분석, 피임약, 항생제 등을 통해 방탕을 조장하기도 하였고, 방탕의 결과(합병증)를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의학이 방탕을 조장하였다는 것은 성연구, 정신분석 이론, 피임약과 항생제 발명, 낙태기술, 합성마약 제조기술 등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방탕의 결과 -또는 복수-는 매독, 기타 성병, 히스테리 현상(노이로제), 에이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무기력(데카당스), 출산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성해방에 따른 성병의 만연은 프리섹스를 억제하였다. 성 혁명에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들도 성해방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그러나 프리섹스와 정신건강문제 간의 원인-결과로서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즉 정신건강 장애로 인해 방탕자(libertinist)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방탕의 후유증으로 정신건강 장애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내면의 갈등 문제가 방탕 행동과 정신건강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지 등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세 번째 설명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내면의 갈등 문제란 어떤 것일까? 정신의학적으로는 그것은 성적 본능과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신 간의 상호역동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신학과 의학 간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Libertinism에 대한 성경말씀

크리스천은 libertinism과 데카당스를 비판하고 그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0여년의 역사를 보면 쉽지 않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더 크신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이다.

다음 말씀에서 보듯, libertinism의 도덕적 무도덕성(amorality)은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와 반대된다.

“너희가 음란(debauchery)과 정욕(lust)과 술취함(drunkenness)과 방탕(orgies)과 연락(carousing)과 무법한 우상 숭배(detestable idolatry)를 하여 이방인(pagan)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 전서 4:3 -

필자는 이 말씀이 libertinism이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성경의 반대를 정확하게 밝

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놀랍게도 성혁명적 프리섹스를 예언하듯 나타내고 있다. Orgy는 난교 파티, 섹스 파티를 의미하는데, 이는 “방탕“의 최악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비도덕적 행동들, 즉 libertinism을 이방인(pagan) 또는 이교도의 우상숭배(idolatry)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 그리스에서 비밀히 행하던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 주신제(酒神祭 dionysia 축제.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기리는 축제)를 지칭하는 것 같다. 사도시대의 로마에서는 이 풍습을 박커스 축제(Bacchanalia)[67]라고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이런 성적 타락, 즉 libertinism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21세기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polyamori의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데카당스도 심화될 것 같다. 그 단적인 증거로, 지금까지 출산율이 저하되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세적 libertinism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연구는 의학을 포함한,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또한 교호의 성교육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67) Walsh, P. G. "Making a Drama out of a Crisis: Livy on the Bacchanalia." Greece & Rome 43, no. 2 (1996): 188-203. Citation on 191. Accessed February 19, 2020. www.jstor.org/stable/643095.

Takacs, Sarolta A.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Bacchanalian Affair of 186 BCE."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Vol. 100 (2000), 301-310. https://www.jstor.org/stable/pdf/3185221.pdf